

what's
S
n

2013 입주작가 쇼케이스
왓츠온

2013. 5. 10 – 11. 3

경기창작센터 상설전시장 프리박스

2013 Resident Artists' Showcase,
What's on

2013. 5. 10 – 11. 3

Gyeonggi Creation Center, Free Box,
the Permanent Exhibition Space

what's

on

경기창작센터가 문을 연 지 4년이 되었고 새로운 운영방향을 설정한지 1년을 넘어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레지던시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동시대의 작가들과 위대한 작가들이 스쳐지나가는 이곳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느낌과 감정, 성찰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그 느낌과 과정들을 자신의 창작에 투사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창작 노트 어딘가에 메모와 구상으로 남겨 두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인간 삶 관계 사회 이런 곳에 동지를 틀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창작을 드러냅니다.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작가들에게 창작과 성찰, 그리고 예술과 창작의 가치를 되짚어 보게 하는 곳이 레지던사일 것입니다.

경기창작센터는 거기에 몇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레지던시의 방향은 예술 감정과 창조 감정이 일종의 화음과 충돌,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작가들이 자신의 창작을 위해서 사색한다는 것, 스스로 연구하고 경험하며 즐긴다는 것, 이 같은 것들이 일상과 지역 속에서 일종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정말 뛰어난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을 제공하는 곳하기를 기대합니다.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스로 설계하는 학제형 컨설팅의 시도와 입주 작가들의 창작의 질과 폭을 넓히기 위한 아카이브와 자료의 축적, 창작활동의 의미를 예술제도 밖으로 확장시키는 학제형 비평의 도입 등을 위한 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이외의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와 그 것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든 상설전은 레지던시에 대한 설명과 센터의 방향과 목표를 표제로 만든 전시회는 아닙니다. 우리 전시회는 입주한 작가들이 사람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친밀하게, 현장 그대로 관람객이나 방문자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전시회입니다.

입주작가 작품의 상설전시는 세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작가들의 창작의 주제들과 관심 그리고 개인 역량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서 이곳을 방문하는 예술 관계자들에게 작가들의 존재와 역량을 알리는 일입니다.

2 다른 한 가지는 경기창작센터에서 시도하고 있는 동시대 예술가와 창작물을 창의예술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도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창작의 의미가 축소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

3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창작과 문화를 가지고 이곳에 도착합니다. 일종의 문화교반의 공간인 셈입니다. 좀 더 의식적으로 국제교류의 새로운 모듈을 만들 필요가 있겠지요.

2년이 지난 이제야 7개의 건물을 모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격려해주신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59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큐레이터와 스태프들에게 공을 돌리고자합니다.

경기창작센터장 최춘일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the inauguration of Gyeonggi Creation Center (GCC), and a full year since new directionalities have been implemented. As we all know, the idea of a residency is no novelty in itself. Here, where countless contemporary, great artists have spent months and years, residents must have experienced various emotions, feelings and reflections, which must have been represented in their works. Or, they could have left traces of their days at GCC in their notes and memos. One day, these ideas emerge out of the textures of daily life and social interactions, and present themselves to the world. A residency is a place that invites artists into this repetitive process, and retrace the meaning of art and creation.

GCC adds a few new elements to the above. The kind of residency GCC wishes to become, is a place where artistic and creative initiatives creates harmony, cacophony, and synergy.

Artists contemplating on their creations, researching, experiencing and enjoying – these activities enhance the value of life in our daily lives and the regional space, and we hope GCC offers the artists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ir potentials of becoming a great creator.

GCC’s plans include implementing self-design based disciplinary consulting which aims to reinforce creative capacities and vitalize creative activities; accumulation of archival data for expanding the width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resident artists; and incorporating disciplinary criticism that extends the meaning of creative activities beyond the art institu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explain all the above objectives to those who had visited GCC for reasons other than residency, but we wish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our visitors to experience the sounds that spring from the depth of one’s self, and express them in their own voice.

As you know, the goal of our permanent exhibitions are not to explain the residency or promote the Center’s directions and objectives. Through our exhibition, we hope to introduce our artists to the visitors in a more precise, accessible fashion.

The permanent exhibitions of the resident artists have three objectives.

1. Showcase the artists’ creative subjects, interest and capacity and introduce their existence and abilities to visiting art patrons.

2 Connect GCC’s contemporary artists and art works to the Crea+Art Program. The meaning of creativity has been, up to now, downplayed in comparison to educational purposes.

3 Artists from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rive here with their own creativity and culture. GCC, in this sense is the seedbed of cultural exchange. There is a need to, more consciously, build a new module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interchange.

After two full years, we have come to utilize all seven buildings. We extend our heartfelt gratitude to Gyeonggi Province’s administrators for their financial support - despite the economic downturn - and encouragement.

We owe our current accomplishments and projects to the curators and staff members who have endeavored to introduce the works of 59 artists.

Choi Chunil
Director of Gyeonggi Creation Center

강민숙
대한민국

Kang, Minsook
Korea



Empty Travel
싱글 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3' 48"
2010

나의 작업은 세계의 불확실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로부터 출발한다. 일상 사물의 이질적 결합과 다양한 매체들의 최소한의 결합과 거리두기를 통해 공간 속에 놓여진다. 이는 아무런 일화나 내러티브 기술의 흔적조차 읽혀지지 않는 단순한 시각적 기호로만 머물지도 모르나 작품은 완결된 텍스트라기보다 하나의 멀티미디어를 구성하는 불완전한 객체에 가깝다. 또한 작품은 작품의 외부조건 즉 다른 작품, 주변 공간, 관람자의 관계를 토대로 일시적으로 결합되고 형성된다. 이러한 작품의 이탈과 우연적 만남을 통해 완벽한 메시지 전달의 소통이 목적이 아닌 열린 구조의 서사, 열려있는 상태를 만들고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앞으로의 작업은 보다 더 즉흥적이고 우연한 요소를 결합시키며 끊임없이 불확실성을 생산하는 것이 내 몫이라 생각한다.

My work begins with cognizing the ambiguous state of the world. I position my work by through a process of distancing myself from the incongruous combination of daily objects and the minimum level of combination among various mediums. This may be limited to a simple, visual sign that precludes any personal anecdote or traces of narrativity, but the works are incomplete objects that constitute multimedia, rather than a closed text. Also, the works are temporarily formed and shaped based on external conditions, such as the interrelations among other works of art, the surroundings and the audience. I intend to create an open narrative/ state that sublates perfect communication through such transgressions and coincidental encounters, and ceaselessly form new relationships. In this light, I believe that my mission is to tie together instantaneous and incidental factors, producing ambiguity.

- 개인전
- 2012 *Ground*, 스페이스 캔, 서울
- 주요 단체전
- 2013 ()를 위한 무대, 인사미술공간, 서울
예술 정원, 한전아트센터, 서울
대안공간-창작스튜디오 아트페스티벌,
파주출판단지, 경기
동방의 요괴들 *Best of Best*, 충무아트홀, 서울

- Solo Exhibitions
- 2012 *Ground*, Space CAN, Seoul, Korea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3 *Turning The Stage Upside-Down*, Insa Art Space, Seoul, Korea
- 2012 *Art Garden*, Kepco Art Center, Seoul, Korea
Alternative Space-Creative Studio Art Festival, Paju Book City, Gyeonggi, Korea
Dongbangyogoi Best of Best, Chungmu Art Hall, Seoul, Korea

고영택
대한민국

Ko, Youngtaeg
Korea



“안산, 남산”-
연인들의 공동체 - 같이 있음
“Ansan. Namsan”-
The Community of
Couples
싱글 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7' 06"
2012

나의 작업은 공동체 안에서 집단과 군중으로 단순화 되는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개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파편화 되어가고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화합을 목적으로 한 공동체에 대한 요구는 사회와 개인의 다양한 결핍에서 기인하며 상대적인 상실감을 수반한다. 이러한 상실감은 공동체가 가진 나누는 것에 대한 내밀함의 깊이에 의해서 상쇄되기도 하고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My work springs from my interest in the anonymity of individuals, simplified into groups and mass within the community. The role of an individual is important for shared benefit and purpose within a collective entity. However, because we feel a sense of belonging and homogeneity within the community, our lives are more fragmented. Demands for the community, aiming at material abundance and mental harmony, originate from various lacks of the society and individuals and entail relative deprivation. Such feelings of lack can be offset by the depth of intimacy found in sharing within the community, or in turn cause the disintegration of the group.

- 주요 단체전
- 2013 *진례다반사*, 김해 클레이아크미술관, 진례
- 2012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섬*, 인천아트플랫폼 크리스탈큐브, 인천
- 2012 *빛 2012*,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 2012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2012*, 금강
- 2012 *페스티벌*, 오! 광주 미디어아트 2012, 광주
- 2010 *미디어시즌 인 헤이리 2010*, 헤이리, 경기도
- 2009 *공간 변주*, 콘스트독 갤러리, 서울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3 *Jillye*, Clayarch Gimhae Museum, Gimhae-si
- 2012 *Song of the Island*,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 2012 *Ha Jung-Woong Young Artists Invitation Exhibition*, Gwang-ju Museum of Art
- 2012 *Geumgang Nature Art Biennale 2012*, Geumgang
- 2012 *Festival O' Kwang-ju Media Art 2012*, Gwang-ju
- 2010 *Mediaseason in Heyri 2010*, With Artists Gallery, Gyeonggi-do
- 2009 *Acoustic Space*, Kunst Doc Gallery, Seoul

도시시 엠윤
대한민국

Dorothy M Yoon
Korea



서커스

서커스 #1
Circus #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Archival Pigment Print
96 x 145 cm
2012

나의 작업의 중요한 요소는 분홍색과 소녀라 할 수 있다. 나는 이 요소들의 모순과 모호성에 아주 끌리고 말았다. 흰색과 빨강(분홍), 아이와 여자(소녀), 평범함과 특별함, 환상과 현실, 서양문화와 동양문화. 또한 분홍색과 소녀는 금발머리에 파란 눈 그리고 분홍색 플라스틱 하이힐을 신은 바비인형을 가지고 놀던 내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아름다움과 환상에 대한 강한 욕망의 반영이기도 하다. 하얀 서커스와 하얀 병원의 만남은 금발에 동양 얼굴을 한 소녀들처럼 어색하지만, 교차되고 고유화 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혼혈된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선택과 모호함 그리고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he key elements in my work are the color pink and the figure of a girl. I was fascinated by the contradictions and ambiguities of these motifs. White and red (pink), child and woman (girl), plainness and outstanding qualities, Western and Eastern cultures. Also, pink and the girl figure reflect my strong desire for beauty and fantasy, going all the way back to my childhood dreams from the times when I was playing with Barbie dolls with blond hair, blue eyes, and pink plastic high heels. The crossover of white circus and white hospitals could seem awkward like blond girls with an Asian face, but they express our hybrid identities as such aspects ceaselessly overlap and become uniquely characteristic. We may be able to choose cultures we prefer, and experience a wider range of choice, ambiguity and potentials.

- 개인전
- 2011 도시시 엠 윤 사진전, 로코코 넘버.33B, 갤러리 현대 16번지, 윈도우 전시, 서울
 - 2009 8명의 히로인즈, 도시시 엠 윤 런던 데뷔개인전, 살롱갤러리, 런던
 - 2008 13의 금발들, 앤드류 제임스 아트 갤러리, 상하이

- 주요 단체전
- 2012 바츨혁명전, 경기도 미술관, 한국
대구사진비엔날레, 대구 시립미술관, 한국
한국현대미술-시간의 풍경전, 성남아트센터, 한국

- Solo Exhibitions
- 2011 Rococo No.33B, 16 Bungee, Gallery Hyundai Window, Seoul
 - 2009 8 of heroines, Dorothy Yoon, SaLon gallery, London
 - 2008 13 of Blondes, Andrew James Art gallery, Shanghai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2 Bartz Revolutionary Wa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do
Deagu Photo Biennale, Deagu art Museum, Deagu
Landscape of Moment, Seongnam Arts Center, Gyeonggido

원
대한민국

Mioon
Korea



Statue Number

싱글 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2' 30"
2010

“군중은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세하기 바란다. 성장하려는 욕구, 이것이야말로 군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 군중의 확장에는 한계가 없다. 열린 군중은 그 자체가 성장하는 한 존재한다. 성장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열린 군중은 와해된다. 그래서 군중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가능한 한 모든 자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궁극에 가서는 산산조각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엘리어스 카네티 (군중과 권력, 1960)

- 개인전
- 2011 Lead Me To Your Door!,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Superstudio, 밀라노
 - 2010 Blickwechsel. NRW Art Project, 쿤스트페어라인 코스펠트, 독일, 백팩토리 갤러리, 요하네스버그

- 주요 단체전
- 2012 Licht An, 에어프루터 쿤스트페어라인, 독일
바츨 혁명전, 경기도미술관, 한국
 - 2011 Lichtsicht Projection Biennale, Bad Rothenfelde, 독일

“As soon as it exists at all, it wants to consist of more people: the urge to grow is the first and supreme attribute of the crowd. There are no limits whatever to its growth. The open crowd exists so long as it grows; it disintegrates as soon as it stops growing. It seeks, through rapid increase, to avoid this for as long as it can; it absorbs everyone, and, because it does, must ultimately fall to pie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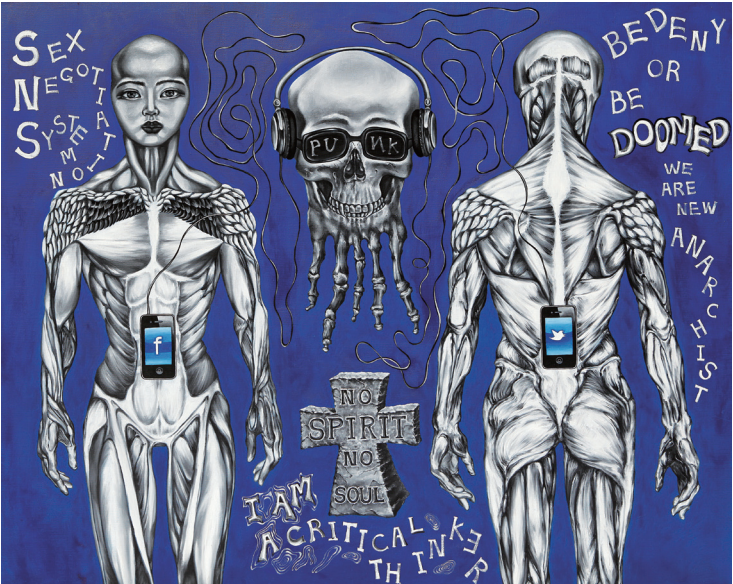
Elias Canetti, Crowds and Power, 1960

- Solo Exhibitions
- 2011 Lead Me To Your Door!,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Superstudio, Milano
 - 2010 Blickwechsel NRW Art Project, Kunstverein koefeld, Germany, Bag Factory Gallery, Johannesburg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2 Licht An. Erfurter Kunstverein, Germany
Bartz Revolutionary Wa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Korea
 - 2011 LICHTSICHT, 3rd Light Biennale, Bad Rothenfelde, Germany

박진옥
대한민국

Jinokist
Korea



No Spirit No Soul
캔버스에 오일
oil on canvas
130.3×162.0cm
2012

한 마리의 동물이 되어 거칠고 본능적인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며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술가로써 인생의 숙제이자 목적이다. 정치가는 대중들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예술가는 대중의 의식을 이끌어 간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는 생각하고 사유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의식 역시 길을 잃고 확립화 되어간다. 현대 사회의 예술가가 해야 할 의무 중의 하나가 바로 의식의 혁명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나의 작업의 목표이다.

The task and purpose of an artist is to see and feel the world with wild, instinctive eyes as a primal animal, and presenting the results to the mass, unfiltered. Politicians lead people's lives, but artists shepard the public's minds. Our fast-paced society does not allow time to ponder and think; therefore, our identities become lost and homogenized. I believe that one of the mission of contemporary artists is to catalyze the revolution of awareness.

개인전

- 2012 Jinokist, 교통아트 스튜디오, 전주
2011 Life & Death, 더 케이 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 2013 - 2014 경기창작센터 하반기 입주작가
2012 교통아트 레지던시 3기 입주작가

Solo Exhibitions

- 2012 GyoDong Art Residency Off Air Exhibition, GyoDong Art Studio, JeonJu
2011 Life & Death, The K Gallery, seoul

Residency

- 2013 - 2014 Gyeonggi Creation Center
2012 GyoDong Art Studio 3Th Resident Artist

박형근
대한민국

Park, Hyunggeun
Korea



Tenseless-65,
Last Summer
C-프린트
C-print
120x170cm
2009

이 세계에서는 예측과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각의 측수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 어쩌면 차라리 듣지 않고 보지 않는 편이 훨씬 편하다. 그래야만 나를 바라보는 나와 만나게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곳은 예전에 왔었던 곳임에 분명하다. 거칠지 않은 바람의 속삭임과 정적인 나무들의 동물적 움직임,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초록 늪의 유혹 등, 오래된 세계의 흔적들이 낙엽 쌓이듯 겹쳐져 있어서 걸을 보는 일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일이 되고야 만다. 누적된 세계의 층위들을 한 꺼풀씩 들추어 내는 일은 복잡한 미로 안에서 나침반 바늘이 지시하는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만큼 어렵다. 이 곳은 그래서 사진으로 담아내기에 무척 어려운 곳이다. 보지 않고 생각을 멈출 때야 비로소 더 많이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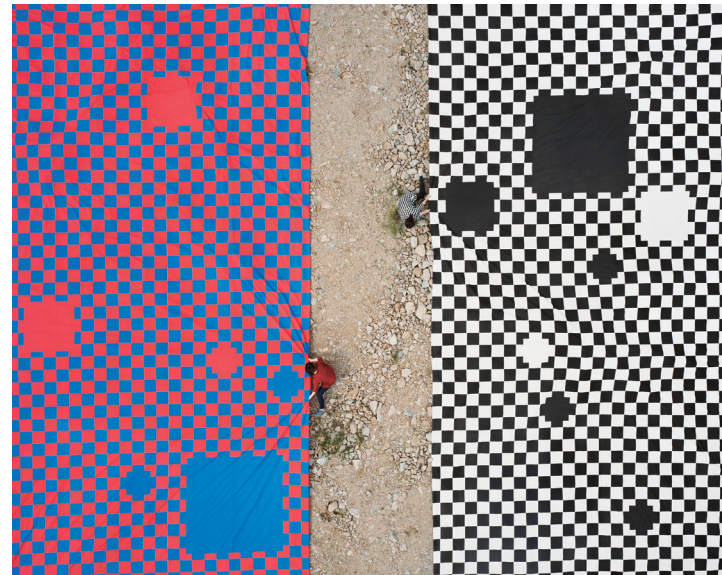
It is a usual phenomenon every time I come to this place. Because estimation and decision is impossible here, I have to use my animalistic tentacles to sense. Not listening and looking perhaps would be better. Then, I can meet with myself that is looking at me. It surely is a place I had been before. Whisper from breeze, trembling twigs, and seduction of endless green marsh; layered traces of old world make what I see become nothing. Peeling the layers of traces is difficult like getting out of labyrinth only depending on a compass. It is very hard to photograph this place because you can see more when you stop looking and thinking.

주요 개인전

- 2011 시간의 울림, 갤러리 잔다리, 서울
기억의 향해,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금단의 숲, 제9회 다음작가상 수상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8 Imaginary Journey, 갤러리잔다리, 서울
2006 박형근 전, 금호 영아티스트 선정, 금호미술관, 서울
박형근 전,
The New Art Gallery Walsall 미술관, 영국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1 Resonance of Time, gallery zandari, Seoul
Voyage of Memories,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Forbidden Forest, Exhibition for the Awarded Artist of 9th Daum Prize, Insa Art Center, Seoul
2008 Imaginary Journey, gallery zandari, Seoul
2006 Hyung-geun Park, Kumho Young Artist, Kumho Museum of Art, Seoul
Hyung-geun Park, The New Art Gallery Walsall, Walsall, UK



포획된 자연_땅 #1
The Captured
Nature_Earth#10

잉크젯 프린트
ink jet print
144×180 cm
2012

〈포획된 자연〉 프로젝트는 자연을 점용하고 소유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장치들을 설치하고 그것을 행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적인 관점에 대해 의심해 보고, 과연 자연이라는 것이 소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작업의 초기에는 비닐, 천, 끈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 직접적인 포획의 방법을 연구했다면, 최근의 방법은 기하학적 도형화, 이분법적 사고, 색, 숫자 같은 인간의 이성적 행위가 기반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포획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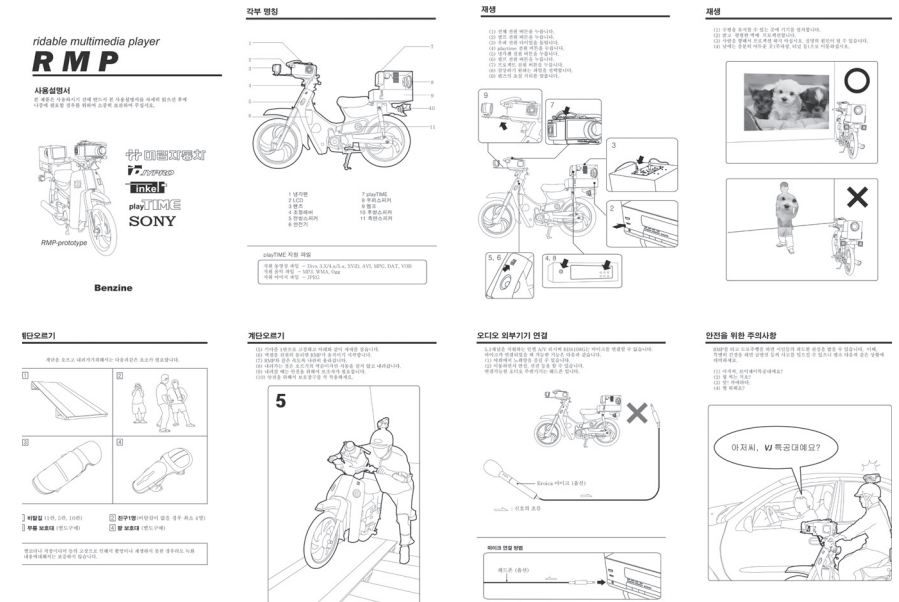
The Captured Nature Project aims to install various devices used to occupy and possess Nature, and document people's usage of such apparatuses. Through this process, I wish to question the anthropocentric perspective towards Nature, and think about whether Nature could truly be an object of possession. In the initial stages of my work, I explored ways of direct capturing using tools such as vinyl, cloth and strong; recently, I am working with things that arise from rational human behavior, such as geometric formulation, dualism, colors and numbers.

RMP 사용설명서
RMP Manual

출력물
print
148×105mm
2006

백정기
대한민국

Baek, Jungki
Korea



전자매체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전자매체가 개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을 시각화 하는 것이 내 작업의 큰 주제가 되어왔다. RMP는 'ridable multimedia play'의 약자다. 말 그대로 RMP는 “탈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로서, 각종 미디어 장치와 오토바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매체가 구성되는 기존의 조건에 이질적인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미디어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결과를 갖는다. 이러한 RMP는 양식화된 전자매체의 위상을 묻는 대안 미디어로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radical progress in electronic media, media has become necessity rather than choice in our communication environment. At this juncture, we must ask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media and individuals may be understood. My objective was to visualize such questions. RMP is the acronym for rideable multimedia play. Literally, RMPs are rideable, comprising various media devices and a motorcycle. It combines existing conditions that constitute electronic media with disparate factors, consequently transforming one's relationship with media. RMPs could be seen as alternative media that questions the stereotypes and positionality of media.

주요 개인전
2013 *Invading Nature*, 송은아트큐브,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아와미술프로젝트 <Nature>, 모란미술관, 경기도
2011 서울-파리, *What do You think about Nature?*,
Galerie89 쿤스트트 프로젝트, 파리, 프랑스

2013	Selected Solo Exhibitions <i>Invading Nature</i> , Song Eun Art Cube
2012	Selected Group Exhibitions The Outdoor Arts Project < <i>Nature</i> >, Moran Museum of Art, Gyeonggi-do
2011	Seoul-Paris, <i>What do You think about Nature?</i> Galerie89, Paris

개인전
2008 *RMP-b*, 머리를 회복하다, 대안공간미끌

주요 단체전
2012 *HAPPY* 좋은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전,
좋은예술창작센터

2011 *골목길 GMD-행공동을 걷다*, 대안공간 눈
2009 *Zip*, 스페이스 빔

2008 *선생님이 그리라고 한 그림*, 신한 갤러리

Solo Exhibitions

2008 *RMP-b*, Regaining the Impaired Naus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0 *Hongseun Resident Artists Report Exhibition*
HAPPY, Seoul Art Space Honeun, Seoul

2011 *Golmokgil GMD-Walking around Haenggol*
Alternative Space Noon, Suwon

2009 *Zip*, Space Beem, Incheon, Korea

2008 *Forced Painting*, Shinhan Museum, Seoul

양쿠라
대한민국

Yang kura
Korea

염지혜
대한민국

Yeom, Jihye
Korea



궁녀
The Court Lady

C-프린트
C-print
100x66cm
2011

일상의 삶 속에 반복되는 현상 중 하나는 이동이다. 이동은 각각의 목적에 따른 발걸음으로 본인도 현대사회의 한 개인으로서 자신만의 목적에 따른 이동을 한다. 하지만 본인은 일상의 풍경을 이동 중에 감상한다. 획일적 재료로 만들어진 건물과 도로들의 풍경이 펼쳐지지만, 그 풍경 안에 조금씩 다른 풍경이 발견되기도 한다. 본인이 발견하는 풍경은 시간에 따른 변형으로 생성된 것으로, 다양한 형상들이 나타난다. 또한 이미지들을 수집하며, 그 이미지에 정신적 · 물질적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미지들은 흔히 보수되어야 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지만, 이미지가 지닌 시대적 의미는 확실화되어가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유희거리와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미지를 발견하는 행위에 우연성이 크게 작용하며 우연한 발견행위는 무의식을 배경으로 정리된다.

One recurring phenomenon we find our daily lives is movement. Movement is paced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I myself move according to my own agenda as an individual within the contemporary society. However, I appraise my surroundings during such movements. The landscape consists of standardized buildings and roads, but I often find unfamiliar moments within such familiarities. What I discover are sceneries that result from transformations over time, which produce various forms. Also, I collect images, and endow them with psychological and material values. Images are often understood as unnecessary or objects to be modified, but the socio-historical meanings of the images contain various tales and elements of interest that reflect our society. Coincidence is a key factor in discovering images, and unintended discoveries are arranged based on our unconscious.

Unseen Place

에칭
etching
30x40cm
2011



- 개인전
- 2012 *Walking on the Street, the Move*, EMU문화복합공간, 서울
 - 2011 *Walking on the Street, Sea Lion*, Placemak, 서울
- 주요 그룹전
- 2013 *Artist's Portfolio Archive*, 사비나 미술관, 서울
 - KAIST와 함께하는 상상미래전*, 예울마루, 여수
 - 반짝반짝 작은별*, 공아트스페이스, 서울

- Solo Exhibitions
- 2012 *Walking on the Street, the Move*, EMU, Seoul, Korea
 - 2011 *Walking on the Street, Sea Lion*, Placemak, Seoul, Korea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3 *Artist's Portfolio Archive*, Savina Museum, Seoul, Korea
 - Imagine of the Future*, Yeulmaru, Yeosu, Korea
 - Twinkle Twinkle Little Star*, Gong Art Space, Seoul, Korea

-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 2013 *비디오 & 미디어*, 갤러리 정미소, 서울
 - 2012 *선화된 사람들*, 헬리오폴리스 갤러리, 뉴욕
 - 금전적 연계*, AS갤러리, 크라코우, 폴란드
 - 오픈데이*, 창고, 상파울로, 브라질
 - 아티스트 토크*, TR1갤러리, 탐페레, 핀란드

- Selected Solo & Group Exhibitions
- 2013 *Video & Media*, Gallery Jungmiso, Seoul
 - 2012 *Circled the Man*, Heliopolis Gallery, New York
 - Cash Nexus*, Galeria AS, Krakow, Poland
 - Open-day*, Galpao, Sao Paulo, Brazil
 - Artist Talk*, TR1 Gallery, Tampere, Finland

위영일
대한민국

Wee, Youngil
Korea



세상에서 가장멀리서
수직면에 그림그리기
Drawing on a Vertical
Plane from the Farthest

싱글 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2' 44"
2012

나의 작업은 항상 주변에 대량으로 순환되는
정보나, 사람들의 의식, 사회와 문화적 현상들을
고찰하고 수집하여 본인의 규구(規矩)에
따라 재가공, 재구성하여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간의 작업들은
욕망의 다층적 탐구와 설정성에 관한 연작들이 있다.
욕망의 다층적 탐구는 미술사에서 모더니즘
이후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타자성에 관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 시리즈를 통하여
보편적인 미술의 문제로부터 현재 한국의 사회,
문화현상까지 타자에 대한 관점을 다각도로
고찰하였고, 최근에는 예술의 형식적인 측면과
현대의 불확정성에 관한 작업(알레아토릭
회화: 미술사를 토대로 새로 설정된 매뉴얼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회화)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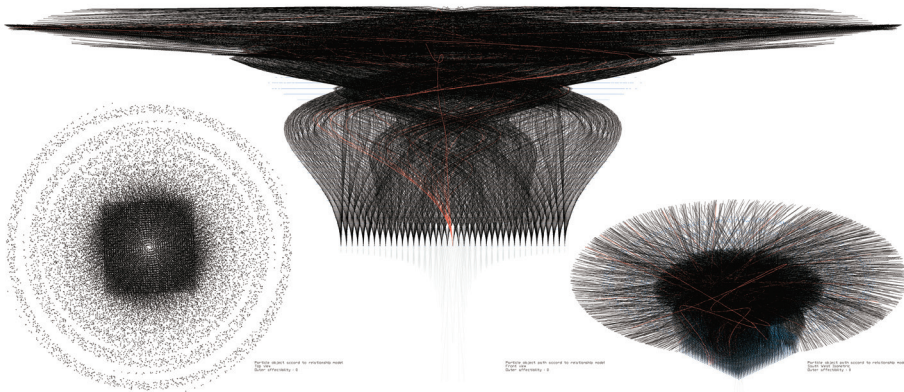
I examine and collect mass-circulated
information, people's thoughts,
and cultural phenomena, which I then
reprocess and reconstruct according
to my own section details and
present through various media and
methods. My past works include
series on multi-layered explorations
settings. The pieces on multi-
layered desire observes the issue of
otherness, a question that has
been explored since the advent of
Modernism in art history, in the
form of their own league. These works
present various perspectives on
universal art,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cultural phenomena.
Currently, I am working on the formality
of art and the uncertainty of the
contemporary world (Aleatorik painting:
drawn in correspondence to the
results of rolling dices on a newly set
manual based on art history).

- 주요 개인전
- 2012 *Guinness Desire*, 카이스갤러리, 서울
- 주요 단체전
- 2013 *Portfolio Archive Lounge*, 사비나미술관, 서울
- 2012 *판타스틱미술백서*, 세종문화회관, 서울
- 이미지의 역습*, 국립고양창작스튜디오, 경기
- 2011 *Bring into the World*, 난지갤러리, 서울

-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2 *Guinness Desire*, CAIS Gallery, Seoul, Korea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3 *Portfolio Archive Lounge*, Savina Museum, Seoul, Korea
- 2012 *A white paper of Fantastic Art*, Sejong Museum of Art, Seoul, Korea
- Attack of Image*, Goyang Art Studio, Gyeonggi, Korea
- 2011 *Bring in the World*, Nan ji Gallery, Seoul, Korea

이대송
대한민국

Lee, Daesong
Korea



강도의 장에서의 형태생성
Mophogenesis from
Intensive Field

라이노 스크립팅
rhino scripting
2004

물질과 재료가 이루는 형태는 초월적이고
완벽한 형을 따라 형성되는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부원리와 가능성에 의해 자기조직화 되어
나타난다. 토네이도의 원리로 부터 힘의 장
(force field)과 물체와의 관계를 선 드로잉으로
발생시켰다. 여기서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만드는) 것도, 생각하는 것을 그리는(만드는)
것도 아닌 형태가 독립되어 스스로 되어가는
것의 과정이 되었다.

Forms made of substance and materials
are self-organized according to internal
principles and potentials, rather than
being modeled after transcendent and
perfect shapes. Inspired by the mechanism
of Tornadoes, I expr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force fields and objects in
the form of line drawings. I see this as
the process of letting forms emerge
on their own, instead of drawing (making)
what one sees or thinks.

영국왕립건축사. DesignSystemLab(외화연구소)운영,
MD USA

물질론자이며 영국, 멕시코,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한국에서 재료체계에 관한 전시, 강연 및 출판물 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 대학원 건축설계 유닛 마스터,
한경대학교에서 디지털 건축 Generative Form을 가르치고
있으며 경기창작센터에서 입주작가로 작업 중이다.

RIBA Chartered Architect, Founder of Design System
Lap, MD USA.

Materialist, published and exhibited about material
system at UK, Mexico, Italia, Germany and Korea.
Currently running design class of Hankyung Univ
and Kunkuk Univ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2013 Resident Artist Gyeonggi Creation Centre.

이병호
대한민국

Lee, Byungho
Korea



기도
Prayer

혼합재료
mixed media
28×28×29 cm
2011

회복에 대한 열망과 체념. 되돌아가는 것 또는 살아내는 이야기.
사라져 잊혀지는 것들과 그것을 되찾고 돌이키려는 이 작업들은 과거가 아닌 다가오는 시간 안에서 가능하다. 지금 만들어 내는 것들은 지난날의 재현으로 눈앞에 드러날 것인데 다만 그것이 온전한 복원으로 귀결되진 않을지라도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의미지어지기도 한다. 지금의 작업에서 나는 회복에 대한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중간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희망과 절망의 기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Passionate desire for and relinquishment of recovery. Returning or lived stories. These works, which try to retrieve and reinstate things that are lost and forgotten, are possible within the coming future. What I produce will emerge as representations of the past - they may not be perfect reconstructions, but they could point to new possibilities. With my work, I speak of the middle ground between the possibility and impossibility of recovery, and the crossroads between hope and despair.

-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 2012 몸의 사유, 소마미술관
 - Mapping the Gray, 갤러리 잔다리
 - 2011 개인전, Shade Tree, 16번지 갤러리
 - Blow-Up, 엔시소프트 Creative Fountain
 - 2010 부산비엔날레, 진화속의 삶, 부산시립미술관

- Selected Solo & Group Exhibitions
- 2012 Thought on Body, SOMA Museum of Art, Seoul
 - Mapping the Gray, Gallery Zandari, Seoul
 - 2011 Solo Exhibition, Shade Tree, Gallery 16bungee
 - Blow-up, NC soft Creative Fountain, Seoul
 - 2010 Busan Biennale 2010, Living in Evolution, Busan Museum of Art, Busan

이선희
대한민국

Lee, Sunhee
Korea



덮어주다
Be Covered

C-프린트
C-print
60×40 cm
2011

모든 감정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서 헌 옷을 재료로 뜨개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의 흔적이 깃든 헌 옷을 편집하고 엮어서 실타래를 만든 후, 한 코 한 코 연결해 편물을 완성하고, 공간을 덮거나 쌓아서 전시한다. 뜨개질바늘의 교차되는 움직임과 실의 얽힘은 나와 타인, 내부와 외부, 현실과 이상 등 세상에 공존하는 것들을 엮어나가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옷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처럼 각기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얽혀 현재를 완성하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 곳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I am knitting, using my old clothes, focusing on the positive aspects of all emotion. I make a skein of yarn by collecting and unthreading used clothes that carry traces of our lives; I connect each knot and weave them out; and I exhibit them, covering spaces or stacking them up. The criss-crossing movements of the knitting needles and the tangles of threads are acts of connecting things that coexist in the world, such as I and the other, inside and outside, or reality and ideal. Like the different colors that constitute the cloth, disparate things come together and establish the present. Staring directly at the face of reality and accepting it could be the beginning of healing. There, I hope we would be able to face our own selves and find hope.

- 개인전
- 2011 진부하지만 그것이 진심, 미술공간現, 서울
 - Can You Hear Me?,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주요 단체전
- 2013 Home Sweet Home, 웨마미술관, 충북
 - 치유: 다섯개의 시선, 노암갤러리, 서울
 - 2012 80-89 감성 이미지, 성곡미술관, 서울

- Solo Exhibitions
- 2011 Hackneyed, But It's True, Artspace-Hyun, Seoul
 - Can you hear me?,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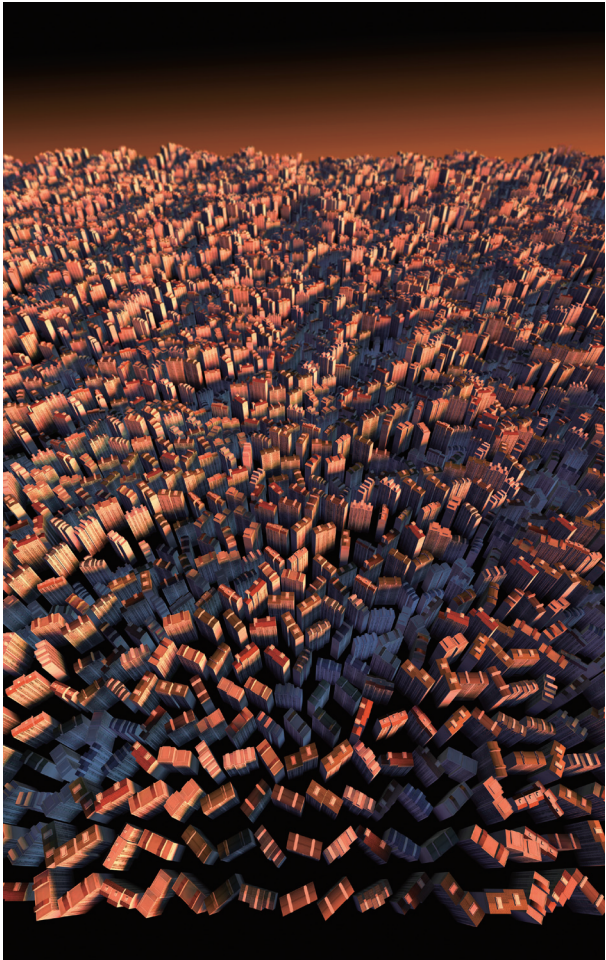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3 Home Sweet Home, Schema Art Museum, Chungbuk
 - Healing: Five Gazes, Noam gallery, Seoul
 - 2012 80-89 Sensitive image, Sungkok Art Museum, Seoul

이종석
대한민국

Lee, Jongsuk
Korea

임선이
대한민국

Im, Suniy
Korea



Urbanwave - Redeveloped

디지털프린팅
Digital Printing
120x78cm
2012

주요 개인전

- 2012 *Wave in the City*, 메이크샵 아트스페이스, 파주
2010 *Trace in the City*, 갤러리 그림손 / 난지 갤러리, 서울
2010 *Trees: LEE JONGSUK*, 메시아 대학 오보 갤러리, 펜실베이니아, 미국

주요 단체전

- 2012 *SIA 미디어아트 어워즈*, C.J/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2 대구 사진비엔날레 - 특별전: 도시의 비밀,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2 *Wave in the City*, Makeshop Art Space, Paju, Korea
2010 *Trace in the City*, Gallery Grimson/Nanji Gallery, Seoul, Korea
Trees : LEE JONGSUK, Aughinbaugh Gallery, Messiah College, Pennsylvani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2 *SIA Media Art Awards*, C.J/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2 Daegu Photo Biennale-Special Exhibition: How the City Works,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回向 3
The Turn of a Face

라이트젯 C-프린트
light jet C-print
100x80cm
2013

주요 개인전

- 2010 *기술하는 풍경*, 갤러리 비울, 서울
2008 *Trifocal sight II*, 관훈갤러리 기획작가공모, 서울
Into Drawing 6. 부조리한 풍경: Trifocal sight,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작가 기획공모, 서울 외 4회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0 *Descriptive Sight*, Gallery VIOL, Seoul, Korea
2008 *Trifocal Sight II*, KWANHOON projects, Seoul, Korea
Into Drawing 6: Trifocal Sight, Drawing Center at Soma Museum, Seoul, Korea

그 무엇을 보았는지 알지 못한다. 알 수 있는 건 그것이 있었다는 것 뿐 의지의 힘으로 보는 것은 의지의 숙명을 등지는 것이다. 어느 날 흐린 눈빛이 와 닿았다. 그땐 그것이 슬픈 것이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고 깨어가고 하는 것이 내 몸에 체득되던 어느 날 그것은 또 다른 볼이고 깨달음이었다. 안다와 알지 못함의 경계선이 아니라 그건 그냥 느껴지는 깨달을 같은 것이었다. 머리가 청명하고 동공이 맑아서 보는 직선로의 주시가 아니라 몸을 돌려 다른 곳을 향하는 회향의 시선이다. 시선이라기보다는 몸이 느끼는 볼이다. 하나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를 인식하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 과정을 보아야 함은 그것이 닿는 궁극일 것이다. 몸을 돌려야하며 방향을 돌려야하며 생각을 돌려야 한다. 중화된 인식으로 보아야하며 울기보다는 씻은 눈으로 대하여야 한다. 지고지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휴탕물에 놓인 그것이 살아난 순간의 영원을 보고자 한다. 그들의 짧은 시간을 기억하며 짧은 시간에 놓인 긴 노고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려 한다. 보잘 것 없어 보일지언정 공간의 기억들은 그들을 영원하게 만들 것이다. 가슴에 맺힌 통한의 기억을 터지지 못한 먹먹한 액체의 유편가 그것을 기억 할 것이다.

서러워 말자 / 이것이 삶이니까 / 이것이 살아나감이니까 / 이것이 깨달음이니까.

I don't know what I saw. The only thing I know is that it was there seeing with the force of will is betraying the fate of will. One day a foggy gaze touched me. It was sad at the time. But one day when I realized that accepting, familiarizing and awakening was becoming part of myself it was another spring, a revelation. Not the boundary between knowing and unknowing; it was just a feeling, an epiphany. Not a direct stare with a cool head and clear eyes, but a sidewise gaze that looks away with a slant posture. Not even a gaze, but more a spring the body feels. It must be the process for cognizing rather than seeing one. The need to see the process must be its ultimate destination. We must turn our bodies, our directions, and thoughts. We must see through neutralized thoughts and see with clear eyes instead of weeping. It is not purity and loyalty I desire; what I want is the eternity of the moment when it resurrects itself from the murk. I remember the short time they had and the their long toils. And I wish to remember their history. It may seem trivial, but the memories of space will render them eternal. Memories of repressed sorrow' bottled up and relegated liquids will remember them.

Let us not lament / as this is life / this is living / and this is revelation.

정승원
대한민국

Jung, Sungwon
Korea



무제
untitled

뎃생종이
paper
412×12.5cm
2007

작업은 재료에 대한 실험에서 시작하게 된다. 뎃생 종이의 표면에 원가를 그려서 재현하는 대신 재료, 물성 그 자체를 사용하여 접어서 작업을 한다. 이런 ‘접기’라는 작업 방식은 평소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 흔히 메모지나 과자 봉지를 접거나 구겨서 버리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쓰레기의 용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휴지통의 용적을 늘리려는 엔트로피적 공간개념을 전제한다.

I initiate my work by experimenting with materials. Instead of drawing, I fold, utilizing the materiality of paper. This “folding” methods comes from the habits engraved in my daily routines. I tend to crumple or fold up paper matters such as memos or cookie wrappings before discarding them; this process points to the spacial concept of entropy, which serves to at once reduce the volume of trash and increase the capacity of the waste basket.

개인전
2011 *PLI*, Espace PRIVAT, 디종, 프랑스
2010 *Escalier*, ENSA Bourges, 부르쥬, 프랑스

주요 단체전
2013 *포트폴리오 아카이브 라운지*, 사비나 미술관, 서울
2012 *만남의 시작* (부산, 함부르크 국제미술교류 공모 당선전),
구 부산진역사, 부산
2011 *A Guichet Fermé*,
Maison de la Culture de Bourges, 부르쥬, 프랑스

Solo Exhibitions
2011 *PLI*, Espace PRIVAT, Dijon, France
2010 *Escalier*, ENSA Bourges, Bourges, Franc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3 *Portfolio Archive Lounge*, SAVINA Museum, Seoul
2012 *To begin is to be half done*
(Art exchange between Busan &Hamburg),
Busan Jin station, Busan
2011 *A Guichet Fermé*, Maison de la Culture de Bourges,
Bourges, France

조재영
대한민국

Cho, Jaiyoung
Korea



Covers

판지, 테이프
cardboard, tape
107×38×34 cm, 98×32×25 cm,
82×27×24 cm, 91×32×22 cm,
122×21×22 cm
2013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2013 *Channels of Interpretation*, 스페이스 컴, 서울
Up and Comers: 신진기예, 토탈미술관, 서울
2012 *Creative Basket*,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 서울
Longing Belonging, Academy Gallery, Utrecht
Three Artists Walk into a Bar...,
De Appel Boys’ School, Amsterdam

Selected Solo & Group Exhibitions
2013 *Channels of Interpretation*,
Space CUM, Seoul, Korea
Up and Comers,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2 *Creative Basket*, Simone Handbag Museum,
Seoul, Korea
Longing Belonging, Academy Gallery,
Utrecht, The Netherlands
Three Artists Walk into a Bar..., De Appel
Boys’ School, Amsterdam, The Netherlands

나는 사물과 공간이라는 유용한 도구를 가지고, 이들을 새롭게 구성, 연결하고(construction and connection), 새로운 구조(structure)를 제작하거나, 각기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 변형(transfer and transform) 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 안에서 고정되고 관념화된 가치와 의미, 계층화되고 제한된 역할과 경계 등을 그들 내부의 필연적 절대성, 본질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들 사이의 모든 가치와 의미들을 철저히 다른 요소와의 관계 구조에 따라 함께 변화, 생성하는 유동적인 일종의 상태, 혹은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I use objects and space to reconstruct and connect, restructure, transfer and transform. This allows me to refuse the perspective of viewing values and meanings that have been fixed and conceptualized in our societies, boundaries and roles that have been hierarchized and restricted as absolute truth or fundamental essence within the internal constitution of objects and space, and transform all the values and meanings in our world into a flexible state or condition that changes according to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 factors.

최은경
대한민국



실개천의 아이들
Children of the Stream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2×112cm
2010

Choi, Eunkyung
Korea

환영 같은 일상의 경험, 정경(情景)들을 통해 순간에 불과하지 않는 어떤 충만함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림의 어원이 ‘그리움’이듯이 ‘그림’이란 무언가에 대한 부재와 연민으로 비롯된 ‘그리움’이며, 무언가를 잊지 않으려고 ‘그리는’ 행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통상 본 것을 그린다고 말하지만(생각하지만), 결국엔 무언가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의 소회와 기억을 통해 그리는 것이다. 어쩌면, ‘그리움’이란 늘 오늘 같지만, 어제이자 내일(來日)인 일신우일신(日身又日身)의 우리 앞날의 풍경이자 삶에 대한 만화경 같은 비망록인 것이다.

I wanted to explore a kind of fullness and nostalgia, something that goes beyond the evanescent and ethereal, through illusory experiences and scenes from my daily life. The etymology of “drawing” can be traced back to “nostalgia”; a “drawing” is a kind of “yearning” springing from the lack of or sympathy for something, resulting in the act of drawing as a way of remembering. Therefore, We say (or think) we draw things we have seen, but in fact we draw in order to remember, expressing visions reconstructed through recollection and memories. “Nostalgia” may appear to belong to the present, but it could also be a record of the future and a kaleidoscopic depiction of life itself as something that renews itself with ever passing day.

- Selected Solo & Group Exhibitions
- 2013 Artwing, Megabox Coex, Seoul
Artwing, Seoul Citizen Hall, Seoul
Sponsor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2012 Cheoungju Art Studio Artist Relay Project, Cheoungju Art Studio, Cheoungju
Thinking of SARUBIA, Leehwaik Gallery, Seoul

-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 2013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영화가 된 미술, 메가박스 코엑스점 영화관 옆 미술관, 서울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서울시 시민청 시민 플라자, 서울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지원사업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 선정
- 2012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아티스트 릴레이 프로젝트展,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Thinking of SARUBIA-사루비아 기금마련전시, 이화익 갤러리, 서울

최해리
대한민국



비가 내릴 것이다
It's Gonna Rain

혼합매체
가변크기
mixed media
size variable
2012

외적형식을 구분 짓게 하는 질료와 양식이라는 경계를 확장하려는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 중이다. 이 실험들은 장르와 매체, 영역을 규정하는 권위와 당위를 입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실의 경험에 대한 관념과 위계를 유보시키려는 게임이기도 하다. 이 때 현재의 기록들을 지시대 삼아 이미 정리되고 정지된 영역들을 소환하기도 하는데 미래의 서사를 위해 전통적 컨벤션이나 표준화된 질서들은 이 말(game piece)들을 가동시키고 운용하는 적극적인 말(word)의 협조자와 공모자들이 된다. 이 미래의 말(末)들은 실현되기 위해 분탕과 모의를 빼곡히 품고 있다.

I am working on a series of pieces that aim to extend the boundary between substance and form, which delineate the external format. These experiments verify the authority and necessity of defining the genre, medium and territory, but also are games that try to suspend the concept and hierarchy of the given fact's experience. At this point, I also invoke areas previously arranged and in status using present records as the foundation; standardized orders or traditional conventions become conspirators and collaborators of the active word that operates and runs these game pieces for future narrativity. These future branches are filled with dissipation and conspiracy, shooting for realization.

-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 2012 비가 내릴 것이다, 개인전, 16번지 갤러리현대, 서울/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AIR IV,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경상남도
Testing Testing 1. 2. 3,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Exchange: Over and Over,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창작스튜디오, 서울
- 2011 - 2012 에필로그: 경계에 서다,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 Selected Solo & Group Exhibitions
- 2012 It's Gonna Rain> solo exhibition, 16bungee GALLERY HYUNDAI, Seoul/SeMA Young Artists Support Program of Exhibitions, Seoul Museum of Art
AIR IV, Clayarch Gimhae Museum, Gyeongsangnam-do, Korea
Testing Testing 1. 2. 3, SongEun Artspace, Seoul
Exchange: Over and Over, Changdong Art Studio,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Epilogue: ON THE BORDER, Gyeonggi Museum Modern Art, Gyeonggi-do

허태원
대한민국

Heo, Taewon
Korea

홍원석
대한민국

Hong, wonseok
Korea



가화만사성
When One's Home is Happy,
All Goes Well

장소특정적 그림 설치@쌍암 이발소,
캔버스에 아크릴, 가벼운 액자
site-specific painting installation
at SSangam Barbershop,
acrylic on canvas, light frame
43×110cm
2012

도시개발에 따른 원도심의 기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쌍암 이발소는 수십 년 간 대흥동을 지켜왔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머리를 다듬어온 이발소 사장님과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의미있는 ‘이발소 그림’(쌍암 이발소에는 이발소 그림이 없었다)을 제작 설치하려 한다. 이발소 사장님 김태운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예전의 이발소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부동산 정보의 교환, 품앗이 계획공유, 친목도모의 장 역할 등)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할아버지께 ‘값어치’(할아버지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화만사성’ 현판을 제작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과거의 장소적 맥락을 현재 상황에 재현함으로써 잊혀진 기억들을 상기시키고, 작가가 생각하는 예술적 가치와 할아버지의 개인적 ‘값어치’의 접점을 모색하며, 두 가치의 교환 과정을 보여주려고 한다.

Despite the mutation of the original downtown due to urban development, Ssangam Barbershop has held its position in Daeheung-doing for decades. I plan to produce and install a “barbershop painting” (which Ssangam lacked), a piece that would have meaning to the customers and the owner who has been taking care of the hairdo of the community residents for a long time. Through conversations with Mr. Taewoon Kim, the owner of the shop, I learned that the barbershop had served as the local information (e.g. real estate tips, labor-sharing, etc.) hub and recreational center, and agreed with him to produce and install a signboard that says “When One’s Home is Happy, All Goes Well (家和萬事成),” a phrase Mr. Kim values (in his own language), meaning happy families are the foundation of all thing. My objective is to remind the viewers of lost memories by resurrecting past, spatial contexts in the present; seek the juncture where Mr. Kim’s personal “value” intersects with my idea of artistic value; and introduce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two values are exchanged.



혼란
Collision

캔버스에 오일
oil on canvas
45×95cm
2013

분단의 현실과 재개발, 철거, 폭력 등이 난무하는 한국의 실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 거주 문제와 직결된다. ‘아트택시 프로젝트’는 비정주, 임시거주의 방식으로 떠돌고 있는 존재로서, 한국을 둘러싼 문제를 바탕으로 미디어, 페인팅, 설치, 비디오 등의 다양한 매체로 작업했다. 이것은 가족사에 있었던 택시를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으로 넓혀가면서 다중적 사회인식을 건드리며 그 방식을 시각화하고자 했다. 자동차는 나의 감수성과 새로운 경험들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특히 수행하고 있다.

The situation Korea is in, such as division, redevelopment, demolitions and violence, can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fundamental issue of residence and life. Continuing “Art Taxi Project,” I have represented the issues Korea as being who do not have fixed residences and wander about in a suspended state of temporary living environments, working with various media such as media, painting, installation and video. My intention was to expand the connotation of taxis, which was previously limited to personal family history, to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spheres, establishing a multi-layered social perspective and visualizing their manifestations. The car plans a critical role in the piece, serving as the medium between my sensitivity and new experiences.

프로젝트

- 2012 – 2013 그림벗 프로젝트, 창전동
- 2011 – 2012 여기에 꽃을 심어도 될까요?, 창전동, 상수동, 대흥동
- 2011 금천공동정원, 독산동

Projects

- 2012 – 2013 Grimbut Art Education Project, Changjeondong(ongoing), Seoul, Korea
- 2011 – 2012 May I plant flowers here?, Changjeon, Sangsoo, Daeheungdong, Seoul, Korea
- 2011 Geumcheon Communal Garden, Doksandong, Seoul, Korea

주요 개인전

- 2013 문래일기(새내라자동차프로젝트)展, 서울시 창작공간 MAP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문래예술공장 M30
- 2009 별이 빛나는 밤에 展, 갤러리현대 원도우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 2013 신진기에: 新進氣銳, 토탈미술관, 서울
- 2012 동네미술 - 커뮤니티아트展, 경기도미술관
- 그 '거리(distance)'의 창의적인 자세, 금천예술공장, 서울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3 Mullae diary, MAP(Mullae Artist Project) artist 3st, Seoul Art space Mullae
- 2009 Starry Night, Gallery Hyundai_window Gallery ,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3 UP-AND-COMERS: 新進氣銳, Total Museum, seoul
- 2012 Community Art,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 The Creative Attitude of that 'Distance', Seoul Art Space_Geumcheon

아jit 바랄
네팔

Ajit Baral
Nepal



작업 공간에서
in his space

나는 글을 쓰고 책을 편집할지라도 스스로를 작가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할 때면 쉽게 염증을 느낀다. 어쩌면 당신은 물어볼 지 모른다. 대체 왜지? 아직은 스스로를 작가라 칭할 정도로 본격적인 책을 쓴 적이 없는 것 같다. 또한 뮤즈가 나를 향해 손짓을 하거나 말거나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는 작가적 경향도 없다. 게다가 최근 대부분의 시간은 출판사 파인프린트의 업무와 2011년에 시작한 국제 문학 페스티벌의 출판인/편집인으로서 책들을 위탁하거나 편집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점에서 보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나를 작가보다는 문학 기획자라 칭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I find myself ill at ease while introducing myself as a writer, as I don't consider myself a writer, even though I have written and edited books. Pray, why? you may ask. I feel I haven't written any substantive books to call myself a writer. Also, I don't have the writerly discipline to sit at the computer and write everyday whether the muse beckons me or not. Moreover, of late, much of my time is being taken up by the bookstore that I run, the commissioning and editing of books that I have to do as publisher/editor of Fine Print, and an international literature festival that we started organizing in 2011. So maybe it's befitting if I dub myself a literary impresario than a writer.

아jit 바랄은 작가이자 편집자이다. 바랄은 『게으른 사기꾼과 다른 이야기들』(뎡건, 인도), 『시간과 공간을 넘는 인터뷰』(파인프린트, 네팔), 두 권의 책을 출간하였으며 『길가에서: 네팔 분쟁을 지르는 여행』(선라이트 출판, 네팔)과 『샤일리 푸스타크』의 공동저자이고, 네팔의 유명 민담의 영문판인 『새로운 네팔, 새 목소리』(루파, 인도)의 공동편집인, 스타일 가이드로 활동했다. 사랑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는 그의 첫 번째 소설 『사랑에 빠지지 않는 법』이 2013년에 출간될 예정이다. 그는 네팔, 국제 잡지에 기사와 리뷰를 게재해왔으며 각종 저널과 책의 형태로 글을 출간해왔다. 그는 카트만두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출판사 '파인프린트'의 설립자이며 편집장이고, 네팔 최초의 국제 문학 페스티벌인 '네팔 문학 페스티벌'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Ajit Baral is a writer and editor. He has published two books: The Lazy Conman and Other stories (Penguin, India), Interviews across Time and Space (FinePrint, Nepal). He is the co-author of By the Way: Travels through Nepal's Conflict and Shaili Pustak (Sunlight Publication, Nepal), a Nepali style guide and co-editor of a New Nepal, New Voices (Rupa, India). His first novel, How Not to Fall in Love, which is a meditation on love, is coming out in 2013. He is the founder and managing editor of a Kathmandu-based publishing house, FinePrint and the festival director of Nepal's first ever international literature festival, Nepal Literature Festival.

엘리자베스 C. 클락
미국

Elisabeth Clark
USA



Into the Air

기상 관측용 풍선,
헬륨, mp3 플레이어,
위성전화기, cb 무선기,
가변크기
100+ gr weather balloon,
helium, mp3 player,
satellite phones,
cb radios
dimensions variable
2011

엘리자베스 S. 클락은 '존재'의 순간적이고 종합적이며 가변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고립시키고 문제시하기 위하여 교묘한 터치로써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엮는다. 매우 유희적이거나 얼핏 보기에도 부조리해 보이기도 한 교묘한 차용은 보다 깊은 내면에 숙고와 고찰을 불러넣는다. 클락은 익숙한 사물들과 만남들을 재협의 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사물의 질서"에 대해 동시에 강조, 붕괴, 의문시한다. 그는 문어, 불명확한 언어를 탐색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명확해지지 않으며 유희, 변화, 순환, 재생의 굴레 안에서 영키게 된다. 클락은 실행자로서 조각적으로, 음악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수행적으로 이를 협의한다. 그는 런던과 파리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Through a slightness of touch, Elisabeth S. Clark carefully interweaves what is already 'there', to accentuate, isolate and question the ephemeral, integral and changing qualities of 'being'. Such simple but provocative acts further elucidate 'what is'. Her slight appropriations, often very playful and seemingly absurd on first glance, imbue deeper insights upon further reflection and consideration. In renegotiating familiar objects and encounters, Clark at once highlights, disrupts and questions the natural "order of things". She forces one to (re)consider the scope of possibility but also solubility of her subject and material. Her search is for a "paper language", a language "en pointillé", for it is never definite but always tangled in a reel of play, of change, of recycling and of renewal. This she negotiates as a practitioner, sculpturally, musically, linguistically and performatively. Elisabeth S. Clark lives and works between London and Paris. She is represented by the Galerie Marie Cini in Paris, France.

Solo Exhibitions
2013 *En un Clin d'oeil*, Bad Ems, Germany
2012 *N'EITHER N'OR*, Galerie Marie Cini, Paris, Franc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3 *Le pas funambule*, Piano Nobile, Halle de la Fonderie à Carouge, Geneva, Switzerland
Found in Translation, chapter M, curated by Emmanuel Lambion, VIP Art Brussels, Belgium
Drawing Now Paris(artist in focus), Galerie Marie Cini, Carousel du Louvre, Paris, France

후안 두케
콜롬비아

Juan Duque
Colombia



Ready to Leave
장소특정적 설치,
중고 카펫
second hand carpetsite
specific installation
200×130cm

문화적, 지형학적인 이동에 관련한 내 개인적 위치가 내 작업의 출발점이 된다. 나는 작품들을 통해서 현재 내가 살고 있거나 지나치고 있는 장소들에 대한 이전의 기억들과 지속적으로 마주친다. 나는 지속적인 이동의 조건들로 인해 내가 어떻게 다양한 세상과 공간 안에, 그리고 다양한 경계와 시간 안에 동시에 거주하게 되는지를 질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은 늘 내 작업을 위한 도전이다. 나는 작업을 하며 경험을 하고, 즉시성, 이동성의 조건하의 창의적임에 대해 질문한다. 그것들은 내 설치작품들의 출발점이 되는 이동과 재위치 같은 공간적 역동성, 그리고 과정을 촉발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My personal situation of cultural and geographical displacement has become the departing point of my art practice. Through my artworks, I am constantly confronting my previous memories with the places I am living in or passing by. I would like to question how the condition of constant displacement allows me to inhabit multiple worlds and places, multiple borders and temporalities simultaneously. Therefore always to work in a new location is a challenge for my practice. In my work I confront experiences and question creativity under conditions of immediacy and mobility; those are also key words that trigger processes and spatial dynamics such as displacement and repositioning which I implement as departing point in my installation works.

후안 두케는 베를린, 뮌헨, 그라츠,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런던, 델프트, 브뤼셀, 앤트워프, 하셀트, 헨트, 메델린에서 작품을 선보여 왔다. 2005년 이후로 그는 벨기에를 주요 거주지로 하였으며 BAM(시각 예술, 시청각, 미디어 예술을 위한 플레미시 인스티튜트)의 일원이다. 그의 프로젝트는 플랑드르 지역의 문화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Juan Duque has shown his work in Berlin, Munich, Graz, Madrid, Barcelona, London, Delft, Brussels, Antwerp, Hasselt, Gent and Medellin (Colombia). He has been based in Belgium since 2005 and is part of the BAM (Flemish Institute for the visual, audiovisual and media art). His projects are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of the Flemish region.

피오토르 쿠렉
폴란드

Piotr Kurek
Poland



공연 장면
in performance

피오토르 쿠렉은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음악가로 계속 전개되고 있는 연주 음악, 피에트나츠카, 그리고 실비아 모니어와의 듀엣 ‘소브 피기르’로 알려져 있다. 그는 수많은 음악 레이블, 다양한 현대 무용, 공연 회사와도 협업해왔다. 쿠렉은 소리로써 춤추는 타피스트리를 엮는다. 그는 앰프가 장착된 오르간,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전자 아코디언, 그 외 많은 종류의 희귀한 악기들을 다루며 공연하기도 한다. 2012년에는 그의 최근 앨범 〈에데나〉(상고플라스모 레코드)가 출시되었다.

a Warsaw-based musician, also known from the ever-evolving instrumental music of Piętnastka and a duo with Sylvia Monnier as Suaves Figures. He has collaborated with a long list of music labels (most notably Digitalis, Sangoplasmo and Crónica Electronica) as well as various contemporary dance and theatre companies. Kurek creates densely-woven tapestries of sound. As a performer, he often makes use of amplified organs, analog synthesizers, electric accordion and many unusual instruments. His recent album Edena was released in late December 2012

주요 앨범
Selected discography
2013 Heat (Black Sweat Records LP)
2012 Edena (Sangoplasmo MC)
2011 Heat, (Digitalis LTD. MC)

현대공연 및 무용과의 주요 협업
Collaboration with theatre and contemporary dance companies
2012 Flatbush, dir Piotr Kurek, CCNR Lyon, France
Sklep z zabawkami, dir Robert Drobnich, Maska Theatre Rzeszów
2011 Sen Eurydyki, dir. Joanna Grabowiecka, Zak Gdańsk

주요 페스티벌
Selected list of music and theatre festivals and performances
2012 Unsound Festival, Kraków, Poland
OneBeat Tour, Atlntic Center of Art, New York, USA
Experimental Polish Radio Tour, Köln, Dusseldorf, Dortmund, Germany

일제 린더스
네덜란드

Ilse Leenders
Netherlands



Tomeishi
디지털프린트
digital print
60x80 cm
2012

내 이미지는 놀라운 내면의 세상의 살아있는 구조를 내보인다. 나는 상상과 실제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상상의 세상을 만들어 무대에 올린다. 그곳이 내가 방향을 잡는 지점이며 그 맥락 밖의 문제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장소이다. 나는 장소, 일상, (무용)극, (미술)사에 영감을 받아 조사, 관찰, 분석을 한 후 실제 작품을 제작한다. 그 모든 요소들은 주체와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종합되고, 독창적인 상상을 창출해낸다. 단편적인 이미지의 다른 면면들을 모음으로써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영화 스틸이나 만화책 속 이미지들처럼 인식된다. 나는 자세히 묘사된 장면 안에 존재에 관련한 측면과 (사진) 기술적 측면, 그리고 패션, 안무, 건축, 연극의 시각적 측면을 함께 모아 담는다. 나는 장면을 조합할 때면 그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강렬한 균형을 잡으려 한다. 색채, 형태, 패턴, 선, 의상, 표현적 신체 언어, 정확한 위치를 주의 깊게 모아서 생각대로 조화로운 구성을 만들어낸다. 추상적, 미화적이고 고요한 세상 안에서 사람, 환경, 장면, 사물, 의상과 행동은 주의 깊게 균형이 잡혀 연결된다. 이미지 안에서 완전히 균형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생긴다. 연극적이고 고무적인 사진적 내러티브의 열려있는 특성은 관객들의 상상에 여지를 준다.

I create and stage an imaginary world, a composed interplay between imagination and reality. Wherein I have the direction and where matters outside their context get a new meaning. After investigation, observation and analysis, inspired by a location, everyday life, (dance) theater and (art) history I come to original work. All its elements are relevant to the subject and carefully synthesized, creating a unique imagery. By bringing together different aspects in a single image, detailed narratives arise that can be perceived as movie stills or images from a comic book. In the detailed staged scenes I bring together substantive, technical (photographic) and visual aspects of fashion, choreography, architecture and theater. I carefully gather colors, shapes, patterns, lines, clothing, an expressive body language and the precise location in order to produce the harmonious composition in mind. Despite the utterly thought out balance in the image, there is the unforeseen, the unexpected and the unpredictable. The open character of the theatrical and stimulating photographic narrative gives room to the viewers' own imagination.

- 2013 Selected Solo & Group Exhibitions
BETER Consortium,
research exhibition by Martijn Engelbregt,
Medisch Centrum Haaglanden, The Hague NL
Taste of Samurai,
Gallery Wereldmuseum Rotterdam NL
- 2012 *City Drifts*, Retort Art Space, Amsterdam NL
Grid Photo Festival, Stadsgalerij Amersfoort NL
Tokyo-Ga, New York Photo Festival, NYC
Solo exhibition, Semblance,
ACF Amsterdam Centre for Photography NL
- 2011 *M*, ACF Amsterdam Centre for Photography NL
Nieuw, CBK Amsterdam Oost NL

시블링
호주

SIBLING
Australia



Encounterculture
비디오 설치
video installation
10' 11"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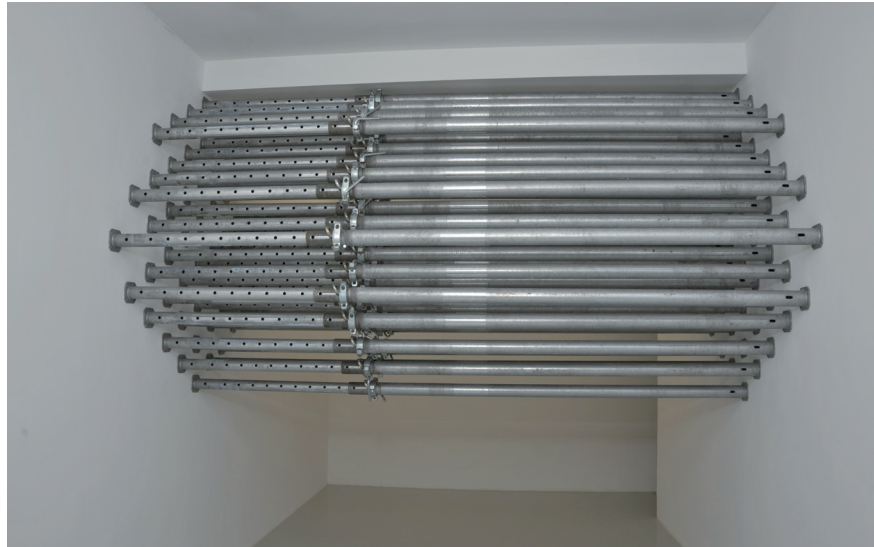
시블링은 건축, 도시계획, 문화분석, 그래픽 소통에 종사하는 디자인 집단으로 세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간적 결과물을 창출하고자 한다. 결과물이 건물, 설치, 도시설계, 이벤트 등 그 무엇이든 시블링의 접근은 항상 지성적이며 긍정적 사회 참여 의식을 담고 있다. 시블링은 큰 역량과 수용력, 혁신적인 문화, 작은 것들에 대한 개별적 초점을 통합하면서 스튜디오 환경 안에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시블링의 성격은 오스트레일리아 및 국제기관들의 강연에 초청되거나 다양한 디자인 출판물에 공헌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로 확장된다. 시블링은 여덟 명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모든 구성원이 건축을 전공하였으며 세계를 지르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경관 건축, 그래픽디자인, 문화 연구, 상업에 노하우를 갖고 있다. 시블링에는 아멜리아 보그, 니콜라스 브라운, 조나단 브레너, 제시카 브렌트, 제인 커트, 치아니 림, 티모시 무어, 앨런 팅이 있다.

SIBLING is a design collective that works at the intersection of architecture, urbanism, cultural analysis and graphic communication to produce new and unexpected spatial outcomes. Whether the outcome be a building, installation, urban strategy or event, SIBLING's approach insists on intelligent forms while fostering a positive socially engaged agenda. SIBLING produce design from within a participatory and research based studio environment, merging our large-scale capabilities and experience with the adaptability, innovative culture and individual focus of a smaller practice. The civic nature of SIBLING extends to members being regularly invited to lecture and teach at institutions in Australia and internationally, and having contributed to various design publications, including Volume, Pin Up magazine, Architecture Australia and Architecture Review Asia Pacific. SIBLING is a network of eight people who are all trained in architecture and maintain active practice across the globe. Additional fields of expertise include landscape architecture, graphic design, cultural studies and commerce. SIBLING is led by Amelia Borg, Nicholas Braun, Jonathan Brener, Jessica Brent, Jane Caught, Qianyi Lim, Timothy Moore and Alan Ting.

- 2012 Selected Group Exhibitions
Open Agenda, Customs House, Sydney
Nomadik, Galeria Dizajn, Wroclau, Poland
- 2011 *Bring Your Own Beamer*,
Tristian Koenig Gallery, Melbourne
Solidarity Thing, Craft Victoria, Melbourne
Whisper Dish, Noise in My Head,
Goodtime Studios, Melbourne
Critical Mobility,
State of Design Festival, Melbourne
- 2010 *Supermarket*,
Gertrude Contemporary Art Spaces, Melbourne
DaySpa, NoNo Gallery, Melbourne

도미니카 스크트닉
폴란드

Dominika Skutnik
Poland



One Ton in the Air

철버팀대
가변크기
프랑스 메츠
steel props
size variable
Metz Fracne
2008

에너지, 힘, 선, 진동 등 물리현상을 이전과는 다른 개인적인 측면에서 다시 작용시키는 것이 내 작업이 갖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나는 조각을 공간 안에 일어나는 사건, 물질성의 일시적인 무대로 이해하고 있다. 사물들은 그 형태가 변하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원소들로 이루어져, 원자 구조처럼 일시적으로 조각의 형태로 수렴되었다가 다시금 풀어헤쳐지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나는 공업 재료들을 내 작품 안으로 빌려오기도 하는데, 케이블, 공업용 발판, 체인 같은 재료들은 설치 작품 안에 사용되고 다시금 본래의 목적(공사 현장, 조선소)으로 되돌려진다. 시각적인 부분도, 비시각적인 부분(전자기장, 진동, 압력 등)도 똑같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구조들을 만들어낸다. 작품들은 그 자체로서 물리적 힘을 만들어내고 발산하며 인체와 작품 사이에 실질적인 충격량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뚜렷한 방식으로, 조각과 생명체 사이, 두 체계 안에 순환되는 에너지 같음을 느끼게 하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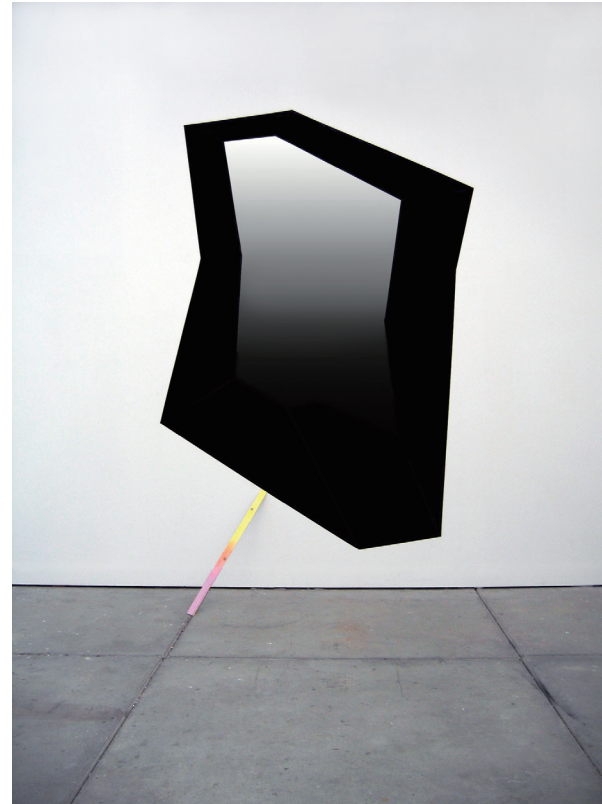
The conceptual basis for my work is that I re-enact phenomena of physics - energy, force, line, vibration - in a different, personal dimension. I understand sculpture as a transient stage of materiality, an event in space. Objects that are shape-shifting, un-fixed. Built of elements that, like atoms, temporarily converge into structures and then part ways. Formally, I often borrow industrial components for my works – cables, industrial scaffolding, chains etc., which, after being used in an installation, will be returned to their original purpose (building site, shipyard). I am creating structures that consist of equally important ‘visible and invisible’ parts (electromagnetic fields, vibration, pressure). The works ‘themselves produce’ and radiate physical energy, and thus enable actual interaction of impulses between a human body and the work. The aim is to feel in a palpable way that the energy circling within the two systems – the sculptural and the living one – is the same.

Solo Exhibitions
2012 *White Cube Rot*, Verein für Raum und Form in der bildenden Kunst, Vienna, Austria
2009 *From Dialog to Goliad*, Dominika Skutnik & Henrik Eiben, Gdansk City Gallery
2007 *Momentum*, Warsaw Active of Artists and Curators, Pol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3 *Open Monument* / Kunstraum Kreuzberg Bethanien, Berlin, Germany
2012 *Who's Afraid of the Cylinder, Sphere and Cone? Geometry in the Landscape, an Alternative Vision of the Environment*, Musée Départemental d'Art Contemporain de Rochechouart, France
2011 *Labour and Leisure*: Alternativa International Contemporary Visual Art Festival, ISW Gdańsk, Poland
Crossactions: Urban Tales, Haffnera Street, Sopot, Poland
Parkowanie, Ephemeral City Park installation, Gdansk, Poland

나자 솔라리
스위스

Nadja Solari
Swiss



Candy Candy, Can't Get Closer, Year.

벽화, 스프레이 페인트,
벽에 비스듬히 세운 막대
wall paint, spray paint,
bevelled roof lath,
murali 325x213 cm,
wood 115x5x1.5 cm
2010

Solo Exhibitions
2011 *Lokalint*, Biel, Switzerland
2010 *High Heel Volume (with Valentina Stieger)*, Solothurn, Switzerland
Bye Bye Birdie, Kaus Australis, Rotterdam, Netherlands
2008 *Derdiedas (with Anke Koschinski)*, Hammer Gallery, Berlin, Germany
Video Installation in Public Space, Videotank, Zurich, Switzerl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Cantonale Berne Ura*, Musee Jurassien des Arts, Moutier, Switzerland
Hongonoshow, Tohyo Woner Site Hongo Space, Tokyo, Japan
Open, Tokyo Wonder Site Aoyama, Tokyo, Japan
2011 *Stadt Galerie*, Bern, Switzerland
Meubler La Solitude, Kunsthau Baselland, Muttentz, Switzerland
Cantonale Berne Jura, Centre Pasquart, Biel, Switzerland
Meubler La Solitude, Kunsthau Baselland, Muttentz, Switzerland

제이슨 위
싱가폴

Jason Wee
Singapore

캐시 웨이더스
벨기에

Cathy Weyders
Belgium



What Monsters Are We Now

설치
Installation
2009

제이슨 위는 싱가포르와 뉴욕에서 미술 작업을 하며 글을 쓰고 있다. 그의 작업은 역사와 공간에 대한 우리의 가변적 해석을 소재로 삼는다. 또한 그는 막 발생하고 있는 작업들과 실험적인 큐레이터십에 중점을 둔 대안적 예술 공간과 레지던시, 그레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의 작업 리뷰가 『아트뉴스』, 『뉴욕타임즈』, 『뉴스위크』,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타임아웃 싱가포르』, 『싱가폴 아키텍처』, 『아트아시아퍼시픽』과 그 외 다른 아시아 출판물에 실린 바 있다.

Lives and work in Singapore and New York. Jason Wee is an artist and a writer. His practice takes up our changing interpretations of history and space. He also runs Grey Projects, an alternative art space and residency that focuses on nascent practices and experimental curatorship. His work has been reviewed in Artnews, New York Times, Newsweek, Wall Street Journ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ime Out Singapore, Singapore Architects, Art Asia Pacific as well as other Asian publications.

Rescue Igloo

구명조끼
Life Jackets
200×200×140cm
2010



캐시 웨이더스는 생존해 살아남을 수 있는 풍광을 만들어내며 보호복, 보호 마스크 안으로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한다. 그는 설치와 다양한 형태의 조각을 함으로써 작업을 진전시켜간다. 이 설치 작품들은 종종 괴물처럼 보이는 유기적 집의 형태나 판타지 건축물, 혹은 미래 수술실 같은 형태를 갖기도 한다. 관객은 이 공간들을 볼 수도, 통과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유목적인 건축에 관심을 두고 일종의 텐트-은신처-동지-벧묵 ...을 만들기도 했다. 영역과 피난처에 대한 생각은 웨이더스가 안락함, 보호, 취약함, 생존에 대한 개념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공간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데 영향을 준 주제이다. 2004년 이래로 캐시 웨이더스는 역사, 대홍수, 난파를 주제로 자신의 영역을 발전 시켜왔다. 그의 섬세한 연구는 생태, 환경, 도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감을 얻은 시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다.

Cathy Weyders invents landscapes where to live and to survive and supplies camouflage, concealed in protective overalls, cowls or masks. She develops her work through installations and polymorphic sculptures. These installations often take the appearance of organic houses which can appear as monsters, fantasy architecture or futuristic surgery rooms. Spaces that the visitor can observe and penetrate at the same time. She has been interested in nomadic architecture and built some-tents-shelters-nests-rafts The notion of territory and refuge are subjects that influence her relation to space, questioning the concepts of comfort, protection and fragility, and the survival..

Solo Exhibitions
2012 *Master Plan*, Chan Hampe Galleries, Singapore
2009 *Ruins*, Valentine Willie Fine Art, Kuala Lumpur, Singapor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Portraiture Now*, Objectifs Gallery, Singapore
New Strange Faces, Valentine Willie Fine Art, Singapore
2011 *Imagine Malaysia*, Valentine Willie Fine Art, Singapore
2010 *Future Perfect*, SHContemporary, Shanghai
The Future of Exhibitions,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Singapore.
ICON de Martell Cordon Bleu Photography Prize, Raffles City, Singapore.
2009 *Paradise is Elsewhere*, Institut fur Auslandsbeziehungen(ifa), Berlin
Vague Terrains, Flag Art Foundation, New York

Solo Exhibitions
2010 *Sauve qui peut*, Lieux-Commun, Namur, Belgium
Batonium, Iris Fest, Mont des Arts, Brussels, Belgium
Batomium II, Bruxelles-les-Bains, Belgium
Kunst Moment, Diepenheim, Netherlands
2009 *Made in Belgium*, M'Atuvu, Brussels, Belgium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3 *Intempéries*, Cultural Center of Huy, Belgium
2012 *I fail good*, Beursschouwburg, Brussels, Belgium
Performance; *La Wallifornie with Manah Depauw*
Game is over, Vooruit, Genk, Belgium
Stuk, Leuven, Belgium
2011 *Dialogues*, Bangkok Art Cultural Center, Bangkok, Thailand
Todaysart Festival, Space Inweyders, Brussels, Belgium

욤나 사바
레바논

Youmna Saba
Lebanon



공연 장면
in performance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욤나 사바는 우연한 계기로 베이루트에서 있었던 한 전시 오프닝에서 공연하기로 수락함으로써 일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욤나 사바는 날마다 마주치게 되는 상황들에서 받은 영감에서 떠오르는 것들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그는 2012년에는 ‘파운드 사운드 네이션’이 조직한 음악 교환 프로그램 ‘원비트’ 참가자로 선발되어 세계에서 모인 32인의 음악가들과 함께 미국을 순회하며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현재 파트타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 동시에 음악학을 공부하며 2013년에 출시될 새 앨범을 제작하고 있다.

After graduating with a Graphic Design in 2005, Youmna has kick-started a parallel “career”, quite accidentally and without pre-planning, after accepting to perform originals at the opening of an exhibition in Beirut. Mainly inspired by everyday situations she encounters, Youmna uses colloquial language to express whatever comes to her mind, whether consciously or not.

In 2012, she was selected as a fellow in the musical exchange program, OneBeat, organized by Found Sound Nation. The program featured 32 musicians from around the world, who worked on creating new music and toured the United States to perform their musical projects. She is currently a part-time graphic designer while pursuing her studies in musicology and working on her new album, to be released in 2013.

- Selected Concert
- 2012 YPK Live, the Autumn Bowl, NYC, USA
 - Labiyaheen al Haki, Metro Al Medina, Beirut, Lebanon
 - 2011 Hal Bent Aabalha Tghanni Launching/Concert, Théâtre de Beyrouth, Beirut, Lebanon
 - 2010 Talk 20, Lecture Series on Art and Design, American University of Beirut
 - 2009 Festival Marsatac, Dock des Suds, Marseille, France
 - Beirut Rocks on the Moon, Deir el Qzmar Festival, Lebanon

베고냐 로드리게즈
스페인

Begoña Rodríguez
Spain



작업 공간에서
in her GCC studio

커뮤니케이션(언론) 분야의 학사 학위와 현대 미술 석사 학위를 받은 베고냐 로드리게즈는 현재 미술 집필가, 문화 어드바이저, 이벤트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이다. 그는 전문 잡지들에 동시대 미술, 미술 시장, 동시대 문화에 관한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 로드리게즈는 스페인과 한국에서 전시, 문화 기획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예술계 관련 국제 매체들에서 편집을 비롯한 업무를 해왔다. 경기창작센터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로드리게즈는 아시아와 유럽의 구축적인 관계를 진전시켜 예술가, 예술 공간 및 기관을 포함한 네트워크에 힘을 실어 굳건히 하는 일에 흥미를 두고 있다.

Bachelor of Communication (Journalism) and Master of Contemporary Art, Begoña Rodríguez is an Art Writer, Cultural Advisor and Events Coordinator. She writes on contemporary art, art market and contemporary culture for specialized magazines. She has coordinated exhibitions and cultural projects in Spain and also in Korea. She has also managed editorial products and coordinated international media relations in the art world. Along with her research at Gyeonggi Creation Center, she is interested in developing constructive relations between Asia and Europe, contributing and consolidating networks involving artists, arts spaces and institutions.

- Art Writing and Editing
- 2013 La Pupila Art Magazine
 - 2007 – 2009 NUMEN Art Magazine
 - 2004 – 2009 LAPIZ International Art Magazine
 - 2004 – 2009 Agenda LAPIZ Directory of Contemporary Art in Spain

- Art and Cultural Events Managing
- 2012 – 2013 Coordinator of Contexto – Association of Independent Publishers in Spain
 - 2012 Assistant to Baudoin Lebon Gallery, Paris, France
 - 2011 Cultural Advisor at the Embassy of Spain in Seoul
 - 2010 International Media Relations at El Greco Foundation Launching

강상우
대한민국

Kang, Sangwoo
Korea



휴거의 구름
The Cloud of Rapture

점토, 펜
pen on clay
17×17.5×13.5cm
2008

내 작업은 개인적으로 간직한 인상적인 기억들과 그에 관련된 정서들에 관해 다룬다. 나는 개인의 특정한 기억이 어떠한 형태로 자신 또는 타자에게 감성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그에 반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는 주로 입체, 설치, 드로잉 작품과 페인팅, 사진, 그리고 포착된 비디오 이미지에 대한 차용 등을 통해 작품화되어 제안된다. 내 작품세계의 중점은 이러한 개인적인 기억과 그것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탐구를 통해 작품의 감상자들로 하여금 강화되거나 변화, 소멸되는 향수, 상실감, 또는 단절감, 고립감 등의 자극과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

My work deals with my personal impressions, memories, and related affects. I question how a specific person's private memory influences his/her own self as well as others, and respond to this issue through art. My exploration takes form through three dimensional pieces, installations, drawings, paintings, photography and video images. The crux of my work is in catalyzing reinforced sentiments, changes, annihilations, nostalgia, melancholia, loneliness and isolation within the viewers through a close examination of personal memories and their transformations.

- 주요 개인전
- 2013 그림으로 알아보는 아동심리,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안산
 - 2011 다크 순풍,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0 쌓이지 않는 눈, OCI 미술관, 서울
 - 2008 강상우, 다이애나 스티그터, 암스텔담, 네덜란드

-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3 *Child Psychology in Pictures*, Geonggi Museum Project Gallery, Ansan, Korea
 - 2011 *Dark Soonpoong*, G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0 *Things You Don't Care But I Do*, OCI Museum, Seoul, Korea
 - 2008 *Sangwoo Kang*, Galerie Diana Stigter, Amsterdam, Netherlands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0 *Must I Paint You A Picture?*, members show, Transmission Gallery, Glasgow, UK

강현덕
대한민국

Kang, Hyunduck
Korea



관계의 조각들
Pieces of Relation

장지에 콜라주
collage on paper
210×137cm
2011

나는 지금까지의 ‘지우기, 그리기’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더 확장된 시간의 흐름, 축적을 말하고 있다. 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소통하기 시작한다. 개인적 경험과 연결되면서 내가 제안하는 작업들의 역설적인 즐거움을 떠오르게 한다. 근작에 나타난 3개의 복합적 작품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구조로 미래의 공간에서 자아를 찾아 나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즘 세상에 묵묵히 시간을 마주하며 존재해온 의미를 그리고 그 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관계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아주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그 대상이 가지는 시간에 따른 무수한 관계의 축적을 말하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 또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내가 있는 이곳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한다.

On the concept, 'Erasing, Painting,' I have kept going with, this work shows expanded time of flow and accumulation. They communicate with the paintings, thinking about their own experiences and match them to what I have suggested in paradoxical way. It will become stepping stone which connects personal thoughts and experiences to my interpretation. My three recent works of Arts hover between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The combination structure might search for one's ego in the future space. Various things can happen in this world. Meanings which faced timelessly, big and little events which happen continuously and their relations jump over the space time. Their relations are countless which has been built up for centuries. In the very busy world, I question myself where I am right now and how I engaged myself in the world.

- 주요 개인전
- 2013 전통문화특별전, 삼청각, 서울
 - 2012 아름다운 인생, Das Kontor Kunsthaus und Museum, 독일 쉼베린

- 주요 단체전
- 2013 우진문화공간 청년작가 초대전, 우진문화공간
 - 2012 게니우스, 인사아트갤러리, 서울
 - 2011 Intro, 국립고양미술스튜디오, 고양

-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3 *Kang, Hyun Duck*, Samcheonggak, Seoul
 - 2012 *Beautiful Life*, Das Kontor Kunsthaus und Museum, Schwerin, Germany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3 *Young Artists*, Woojin Culture Foundation
 - 2012 *Genius*, Insa Art Gallery, Seoul
 - 2011 *Intro*, National Goyang Art Studio

Linked Island Part 3
(전쟁 + 놀이:
{몽키댄스}작업에 관하여)
Linked Island Part 3
(WAR+PLAY: About Work
{MONKEY D'DANCE})

3×2×1.5m
2012



공공의 작업대 위에서 천천히 계속 쉬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재봉틀기계.
그리고, 그 위에 남겨진 흔적들

[몽키댄스_MonKey D'dance]

전쟁 + 놀이 ∞ 놀이 + 전쟁: 망각의 순환공식
승자도 패자도 없는 링 위에 내몰린 짐승들의
미친 출사위
弱者들의 연대와 축제

‘몽키댄스’는 관객의 놀이터가 극적공간이 되고,
그것이 다시 관객의 놀이터로 순환하는
공연이다. 본 공연을 통해 놀이터를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놀이터를 제공하고 그 속에
행위자를 통해 이야기(극)를 침투시켜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구조물은
일상공간에 설치되고, 관객들은 그것을
일상적으로 접촉하지만 어느 순간 행위자를
통해 이야기가 침투하면서 극적 공간으로
변화되었다가 행위자가 사라지면 다시 일상적
놀이공간으로의 회복,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모습을 관객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순환’구조는 반복되는 역사와
인간이 가진 ‘망각’이라는 본능에 대한 질문이다.
망각의 순환은 선한 구조일까. 악한 구조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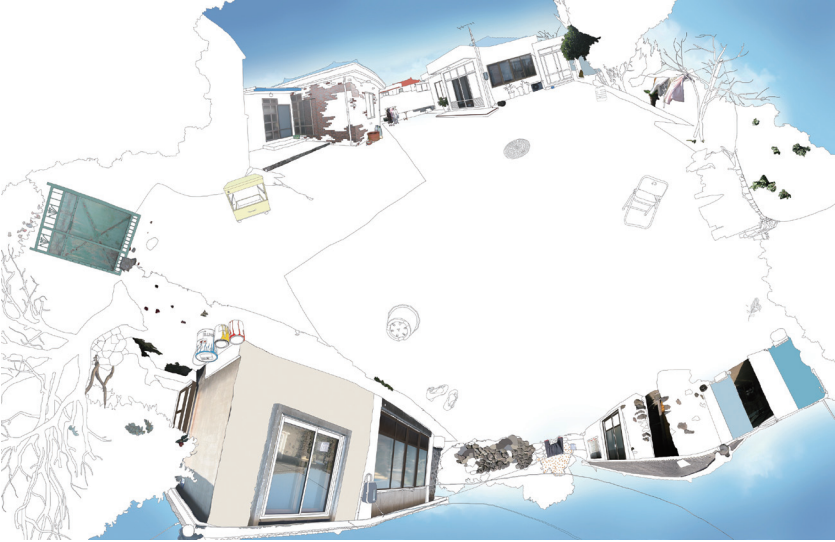
The sewing machine, mechanically and
ceaselessly operating on the shared
work desk. And, the traces they leave
behind.

War+Play ∞ Play+War: The circular
pattern of oblivion.
The mad, dazzling display of dances the
beasts perform, locked into the
ring where there are no winners nor
losers. The bonding and festivities
of the weak.

Monkey D-dance is a performance where
the playground of the audience
becomes a dramatic space, which in turn
turns into the grounds for audience's
play. I wish to provide contemporary men
with the playground which they have
been deprived of, and insert narratives
(performances) in the stories through
the actors, offering new experiences to
the audience. The structures are installed
in daily settings, and the audience
encounter them in their mundane dealings,
but the moment the narrative penetrates
the setting through the actor, the
location turns into a dramatic space.
And again, when the actor is gone,
the place returns to a general place of
play. The audience will witness this
circular cycle, which questions the human
and historical instinct of "oblivion."
Is the cycle of oblivion a virtuous one,
or one that is vicious?

안거리, 밖거리
The Main Building,
The Subordinate Building

디지털프린트
digital print
77×120 cm
2009



도시 속 삶의 흔적을 사진이라는 매체로 담고
그 사진 조각을 오려 붙여 머릿속이 아닌
컴퓨터 화면 위에서 재구성한다. 고층 빌딩이
가득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도시가 아닌
실제 인간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은 골목과
상점들 나지막한 집들로 구성된 풍경이
시간과 공간 속에 켜켜이 쌓인 삶의 진정한
흔적이기에 오래되고 낡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풍경들을 담는다.

I capture the traces of urban life in the
medium of photography, cut and
paste the pictures and reconstruct them
on the computer screen rather than
in my own mind. I encapsulate small back
allies that contain the vestiges of
living breathing human beings and old
houses with low structures, instead
of going for the skyscraper-filled urbanscape;
I present scenes that look old and
outdated, precisely because these traces
are accumulated in time and space,
comprising the true building blocks of life.

개인전
2010 헤이자오, 스페이스 캔, 서울
2009 파노라마(Panorama), 갤러리 온,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Unfinished Journey, 카이스갤러리, 서울
123프로젝트 큰 언덕 섬으로의 초대, 경기창작센터, 안산
네트워크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성북동예술이야기, 스페이스 캔, 서울
인간 서식지, 경기창작센터, 안산

Solo Exhibitions
2010 Heiqiao, CAN foundation, Seoul, Korea
2009 Panorama, Gallery ON,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Unfinished Journey, Cais Gallery, Seoul, Korea
An Invitation to Island of the Big Hill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NETWORK2012,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Seongbuk-dong Art Story, CAN foundation,
Seoul, Korea

박용선
대한민국

Park, Yongseon
Korea



잎
Leaf

연잎, 바느질
a lotus leaf, sewing
63×63 cm
2010

일상에서 발견하는 사물이나 자연물, 혹은 자연현상들을 세련(洗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에 가깝게 보여주는 작업들, 이것들은 세심한 관찰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비누로 만든 개어진 옷가지나 비누에 새긴 어렴풋한 단어들, 헤지고 찢긴 낙엽이나 죽은 식물들을 주워 모아 바느질로 꿰매거나 엮어주는 행위들, 비물질적인 어떤 환경적 인상과 상황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작업들 모두 세심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다. 익숙한 이미지의 속성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확장하는 방법론과 연관된 이러한 작업방식은 나에게 중요한 요소들이다.

Works that refrain from refining the objects we find in our daily lives, things or phenomena from Nature, presenting them in a state that stays close to their original images; this process requires close observation and interest. Vague words carved into a piece of soap, folded garments made of soap, torn shreds of fallen leaves, the act of collecting and sewing together dead plants, works that target immaterial, environmental impressions and situations; these all call for meticulous observation. This methodology I employ, finding meaning in familiar properties of images and expanding them, is an important artistic strategy for me.

- 주요 단체전
- 2013 드로잉, 생각의 시작, 아트팩토리, 헤이리
- 2012 오픈 마인드 예술가, 기업의 문을 열다, KOTRA 오픈갤러리, 서울
- 프로젝트대전2012: 에네르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선셋 장항페스티벌-공장미술제, 장항 미곡창고, 장항
- 2011 2011 Local to Local-Busan in Taipei, Taipei Contemporary Art Center, 타이베이, 대만
- MMAC Festival in Tokyo, HIGURE 17-15cas contemporary art studio, 도쿄, 일본

- Selected Group Exhitions
- 2013 Drawing, Birth of Thinking, Art Factory, Heyri, Korea
- 2012 Open Mind, KOTRA Open Gallery, Seoul, Korea
- Project Daejeon 2012: Energy,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 The 2012 Art Factory Project, Rice Granary, Janghang, Korea
- 2011 2011 Local to Local-Busan in Taipei, Taipei Contemporary Art Center, Taipei, Taiwan
- MMAC Festival in Tokyo, HIGURE 17-15cas contemporary art studio, Tokyo, Japan

박준식
대한민국

Park, Junsik
Korea



대민봉사

사진
photograph
41×160 cm
2011

황산리 가는 길.

황산리에서는 군인이 일상이다.

그 곳에서는 군인이 주인 같고 주민이 이방인 같다.

The way to Hwengsan-ri

In Hwengsan-ri, soldier is a part of regular existence.

There, soldiers are like residents, and residents are like strangers.

- 개인전
- 2011 보호의 공간 - 황산리,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 아브락사스(Abraxas)를 향하여, 보호의공간/위험한 오브제,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08 I & I - 빛으로 말하는 존재의 경계, 모란갤러리, 서울

- 아트프로젝트 기획
- 2012 경기문화재단 문화바우처 사업, 풍도로 놀러오세요, 경기도 안산 풍도
- 2011 경기문화재단 문화바우처 사업, 가가호호 프로젝트, 경기도 안산 대부도

- Solo Exhibitions
- 2011 Heong san lee, Gyeonggi-do, Museum of Art, Ansan
- Heading towards Abraxas..., Gyeonggi Creation Center
- 2008 I & I, Gallery Moran, Seoul

- Art Project Directing
- 2012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Project, Pungdo, Ansan, Gyeonggi-do
- 2011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aga Hoho Project, Daebu-do, Gyeonggi-do
- Daebu-do Photograph Club, Daebu-do, Ansan, Gyeonggi-do

손민아
대한민국

Son, Minah
Korea

송미경
대한민국

Song, Mikyung
Korea



친구와 함께...선반 프로젝트
Dear Friends...Shelf Project

Communication Project,
Daebu Elementary School
2012

〈이웃과 함께... 선반 프로젝트〉는 생활공간의 틈에서 발생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이다. 어느 날 “쓸 수 있는 물건, 하지만 쓰이지 않고 집 어딘가에 있는 물건, 그런 물건을 함께 나눠요” 라고 편지를 보내고 한 공간에 선반을 설치한다. 설치된 선반에서는 매일 ‘소비, 자본’의 가치로만 보던 물건이 아닌, 자신에게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쓸모 있는 물건을 나누고 선물하는 행위가 발생한다. 작은 쪽지와 함께 선반에 물건이 놓이고 누군가는 고맙다는 메모를 남기고 가져가는 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선반에서 나누어지는 사람냄새가 나는 물건과 메모들은 하루하루 흘러가는 일상의 기록들이며 한 공간의 성향을 읽을 수 있는 사회적 언어이다.

Dear Neighbors... the Shelf Project is a visual communication project arising from the fissures in our living spaces. One day, I send a letter that says “let’s share objects that could still be used, but are left discarded somewhere in our homes,” and install a shelf somewhere. The shelf generates the act of sharing and presenting things we do not need but could be useful to someone else, instead of objets that are mainly seen for their “consumption and capital” values. There’s a communication, when someone leaves something on the shelf accompanied by a short note, which is then reciprocated by another who takes the object and leaves a note of thanks. The objects and memories on the shelf, things that hold the scent of life and people, are social languages that project the properties of the space as well as records of our daily lives.

왜곡의 소통
Distorted Communication

오방색 천, mp3파일,
매듭, 미니스피커 1개
five direction colored
fabric, knot,
mp3 file, speaker
180 x 30~50 cm
2012



관계성에 대한 각각의 지점들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가고자 한다. 지역적인 특성과 다양한 언어들이 모여졌을 때, 만들어지는 고리들을 하나의 도형으로 표현하자면 삼각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어라는 가장 원초적인 소리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에 대한 고민과 타자에 대한 생각의 지점들을 나타내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색의 재해석 과정으로 촬영된 이미지와 영상들 그리고 한국 및 이란에서 구입한 오방색의 천들로 매듭의 형태로 서로의 문화적인 이야기들이 얹히고 섞이는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로서 이루어지는 교집합의 의미로 더 진행이 될 것이다.

I try to connect each node of relationality. The joints that appear when local characteristics and various languages are brought together could be depicted in the form of a triangle. I believe that my work will convey thoughts on the relationships created through language as the primitive sound, and the thoughts on others as external entities. The images and videos recorded as a process of reinterpreting colors, a the knots made of colorful cloths bought in Korea and Iran; these will be the crossovers where cultural stories come together, overlap and become entangled.

개인전 및 프로젝트

- 2012 *Steel Construction by Mullae*, 문래-LAB39, 서울
친구와 함께...선반프로젝트, 대부초등학교, 안산
이웃과 함께...선반프로젝트, 경기창작센터,
경기도미술관, 초지동 풍림아파트, 한가람미술관
2009 *Between See and Read*, TOLL Gallery,
몬테비데오, 우루과이

주요 단체전

- 2012 *123 프로젝트_큰 언덕 섬으로의 초대*, 경기창작센터, 안산
소비의 진화: Trading Relations, 한가람미술관, 서울

Solo Exhibitions & Projects

- 2012 *Steel Construction by Mullae*, Mullae-LAB39, Seoul
Dear Friends...Shelf Project, Daebu Elementary School,
Gyeonggi Creation Center, Hangaram Art Museum,
Gyeonggi Museum of Morden Art, Punglim-Apt
2009 *Between see and Read*, TOLL Gallery,
Montevideo, Uruguay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2 *123 Project: An Invitation to Island of the Big Hills*,
Gyeonggi Creation Center
Evolution of Human Consumption: Trading Relations,
Hangaram Art Museum, Seoul

주요 전시 및 기획

- 2013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별별 예술프로젝트 기획, 2013 *침묵프로젝트*,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2012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기획*, 경기문화재단
지구를 살리는 불가사의한 예술프로젝트 COP 기획,
경기문화재단
2012 *노마딕 레지던스 Performance & Presentation*
(Iran), 아르코
총체적난국 아카이브 전시 및 퍼포먼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Selected Performance & Exhib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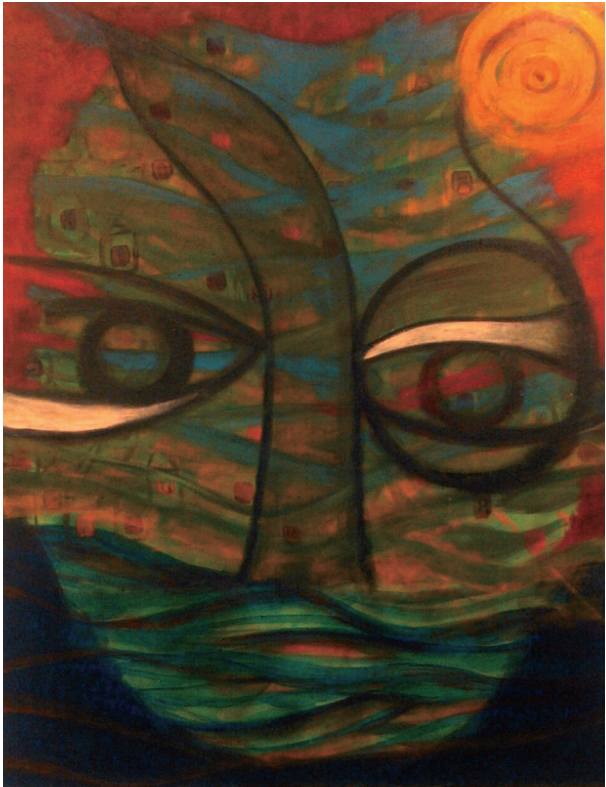
- 2013 *Our Neighborhood Art Project*,
Bakdladong Project 2013: Baksugalchae
All Sorts of Art Projects, Silence project 2013,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2 *Our Neighborhood Art Project*,
Bakdladong Project 2012: Baksugalchae
Saving the Earth Mysterious Art Project COP,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Residence Program at Iran(Performance & Presentation), ARKO
Difficulte Play(Archive Exhibition & Performance), Gmoma

오소영
대한민국

Oh, Soyoung
Korea

이기일
대한민국

Lee, Kiil
Korea



울마(흐르는 여자)
Yulma(Floating woman)

아크릴
acrylic
117x91cm
2013

예술은 바로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그 누구도 범접치 못하는 하나의 고갱입니다

바로 그 순수한 당신의 영혼을 흔드는 일이 바로 예술이며

예술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I think art is the essential thing which
nobody can hurt in your heart.

Art is what to rock and wake your pure soul.

That is the artists’ responsibility.

Grassland 1969–2009

He5 조영남 외 연주
Song by
He5- Cho Yongnam
3’ 52”
2009



‘초원’은 1969년 발매된 그룹 사운드 He5의 스플릿 음반에 수록된 노래의 제목인데 이 노래는 가사의 후반부에 ‘뜨거운 그 입술’이라는 저속한 표현이 가사에 삽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송금지 처분을 당하게 되면서 더 유명해져 60년대 말 최고의 히트곡이 된다. ‘초원’을 연주하고 노래하였던 He5는 한웅을 주축으로 유영춘, 김용호, 조용남, 김홍탁 등 미8군 무대 출신의 실력 있는 뮤지션으로 멤버가 구성되었으며 이 영상은 2009년 12월 금천예술공장에서 진행된 공연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으로 He5 출신의 김홍탁, 조용남 등이 연주하고 노래한다.

Grassland is the title of a song in the group sound ‘He5’s split album, produced in 1969; this song was banned from broadcasting stations due to a vulgar phrase in the later part of its lyrics, “Those hot lips,” eventually becoming the biggest hit in the late ‘60s for that very reason. He5, the group that played and sang the song, comprises competent musicians who performed in the U.S. military bases in Korea, including Young-jun Yoo, Yong-ho Kim, Yong-nam Cho and Hong-tak Kim with Woong Han at the center. This video is an edited version of the performance that took place at Gumcheon Art Factory in December of 2009. The song is performed by Hong-tak Kim, Yong-nam Cho.

- 주요 전시 및 프로젝트
- 2013 가시리레지던시(벽화)
이탈리아레지던시(비주얼아트)
충무갤러리전시
독거노인전
- 2012 충무아트홀벽화
서울과학고벽화
봄날(제주도)벽화

- Selected Exhibitions & Projects
- 2013 Artist-in-residency in Gasiri
Artist-in-residency in Italy
Exhibit in Choong Moo gallery
- 2012 Wall painting at Choong Moo art center
Seoul Science High School Wall painting
Bomnal Wall painting in Jeju-do

- 프로젝트 및 전시기획
- 2012 한국의 크리스마스,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영등포점
한국의 비틀즈, Kazimier, Liverpool
비틀즈 50년, 한국의 비틀즈 마니아, 롯데갤러리 본점,
영등포점, 광복점, 일산점, 광주점
경기문화재단 창립 15주년 사육 외벽 디자인
- 개인전
- 2011 Rainbow Fall, 대안공간 총정각
- 2010 폭발하는 청춘, 갤러리조션, 서울

- Projects
- 2012 Beatles in Korea, Kazimier, Liverpool
Beatles enthusiasts in South Korea, Lotte Galler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building
exterior wall design
- 2011 Finding Beatle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 2009 Christmas in Doksandong, Seoul Art Space Geumcheon
Hero’s age Korean Rock Band 1960–1980,
Total Museum, Seoul
-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0 Exploding youth, Gallery Chosun, Seoul
- 2008 Red, The Room, Total Museum, Seoul

이대일
대한민국

Lee, Daeil
Korea



소리에 이르다
Becoming Sound

복합재료
가변크기
mixed media
size variable
2012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악기를 고안하는 작업은
조각가인 내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음계나
화성 따위는 이제 더 이상 그 의미를 갖지 못한다.

Inventing musical instruments for visually
impaired children is a very interesting
task for me as a sculptor. Scale or harmony
no longer holds meaning.

목리별곡 睦里別曲
Mok-ri Byoel Gok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20x260 cm
2010



아름답지만, 아름답지만은 않은 풍경에 서있다.

I am standing in a landscape that is
beautiful but not merely beautiful.

차갑지만, 차갑지만은 않은 붓을 든다.

I pick up a brush that is cold but not
only cold.

따사롭게 삶을 살았던 존재들과 마주선 채
그대로 멈춘다.

I stand still, in the face of those who
had led warm lives.

그 삶속에 풍경이 비로소 마음에 든다.

Finally, I like the landscape in those lives.

개인전

- 2011 *Sound Cityscape5*, Sowol Art Hall, 서울
- 2010 *Sound Cityscape4*, Space Hamilton, 서울
- 2009 *See what you Hear*, Super Deluxe, 동경
- 2008 *이대일 개인전*, 관훈갤러리, 서울

프로젝트 및 콘서트

- 2013 *소리 프로젝트*, Artist in Residency PARADISE AIR, Matsudo, Japan
- 2012 *소리에 이르다*, 안산 문화예술전당

Solo Exhibitions

- 2011 *Sound Cityscape5*, Sowol Art Hall, Seoul
- 2010 *Sound Cityscape4*, Space Hamilton, Seoul
- 2009 *See what you Hear*, Super Deluxe, Tokyo
- 2008 *Lee Daeil solo exhibition*, Kwanhoon Gallery, Seoul

Projects & Concerts

- 2013 *Sound Project, Artist in Residency PARADISE AIR*, Matsudo, Japan
- 2012 *Becoming Sound*, Ansan Arts Center, Ansan
- 2008 *Toride Art Project*, Toride City, Japan

개인전

- 2010 숲의 끝에 멈추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도서관
- 2009 그대로 멈춰라, Gallery Gala, 서울, 수원미술관
- 2008 生命의 그물코, Young Art Gallery, 서울

주요 단체전

- 2011 DMZ 평화의 길을 가다, 고양문화재단 어울림미술관, 고양
- 2010 경기미술프로젝트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 2009 대지의 꽃을 바다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

Solo Exhibitions

- 2010 *Stop at the End of the Forest*, Bongdam Library, Hwaseong, Gyeonggi-do, Korea
- 2009 *Stop as it is*, Gallery Gala, Seoul, Korea
- 2008 Gmulko, Young Art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1 *DMZ Goyang Cultural Foundation*, Goyan Oulim Nuri Arts Center, Going through the Way of Peace
- 2010 *The Power of Gyeonggi*,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Gyeonggi-do, Korea
- 2009 *2009 Peace Art Festival*,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do, Korea

이혁준
대한민국

Yi, Hyukjun
Korea

자우녕
대한민국

Ja Woo Nyung
Korea



숲 #11
Forest #11

플라쥬 위에 바니쉬
Varnishing on Collage
130x115cm
2008

녹색 일변의 이 숲에 대한 작업이 자연에의 동경이나 집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자연에 대해 다른 이들보다 밀접하거나 절실한 경험을 해본 적 없는 그저 평범한 도시 생활자. 도시 울타리를 벗어났던 시간 모두를 더한다 해도 1년 남짓이나 될까싶다. 사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끝없이 변하는 내 사변의 한 지점에서 이 작업은 출발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듯 ‘사진은 사진다워야 한다.’ 이 보편타당한 듯 들리는 논리는 가끔 나를 불편하게 한다. 과연 사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나쳐간 시간들의 조각난 파편, 사진은 기억이다.

My work on this green forest doesn’t come from my respect for or obsession with Nature. I am a regular city person, who never had any intimate or special experience with Nature. The time I had spent away from the city streets amounts up to less than a year. Then what is the photograph? My work springs from a point of my endlessly transforming thoughts in response to this question. As man should be man-like, photographs should be faithful to what they are. This seemingly universal logic tends to make me uncomfortable. What does it mean for a photograph to be faithful to its essence? Fragmented pieces of past times; photographs are memories.



베트남 출신의 부인을 살해한 한국인 남편, 그의 야만이 수치심으로 다가온다. 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남자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그는 결혼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도 못하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이렇듯 비시민화 된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베트남으로 갔다. 한국 남성들은 그곳에서 적은 돈을 갖고도 어린 여성들을 맘껏 고를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여기에서 이런 형태의 국제결혼은 섹슈얼리티, 내셔널리티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권력이 행복한 결혼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점에 대해 냉소하고자 한다.

A Korean husband who murdered his Vietnamese wife - his savagery hits me as shame. As a Korean, I took this incident as a personal trauma. But at the same time, I also reflect on the man. He wasn’t able to get married; a man who fails to secure a spouse is no man in Korea. To remedy his failure as a proper civil subject, he went to Vietnam. It is said that Korean men can freely choose any young woman with lesser money. With my work, I try to criticize the contemporary customs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such circumstances, how they operate on the basis of sexuality, nationality and capitalism, how the marriages that result from such a system wears the mask of happiness.

후인마이의 편지
The Last Letter from Huynh Mai

싱글 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7’ 14”
2010

-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 2012 녹색 기억, 개인전, 경기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안산
Hong Ko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홍콩
- 2011 실재의 우회, 서울사진축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0 Forest, 개인전, Sarah Lee Artworks & Project, 산타모니카, USA
- 2010 Forest_Eden, 개인전, 상상마당, 서울

- Selected Solo & Group Exhibitions
- 2012 Green Memories, Project Galler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Hong Ko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Hong Kong
- 2011 Seoul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Seoul Museum of Art, Seoul
- 2010 Forest, Sarah Lee Artworks & Project, Santa Monica, USA
Forest_Eden, Sangsangmadang, Seoul, Korea

- 기획
- 2013 단편 다큐멘터리, 최미한 국경, 연출, 제작
웅산참사4주기 기념 퍼포먼스, 내가 너에게 말을 건다, 기획, 연출
- 개인전
- 2012 후인마이의 편지, 아트센터 나비, 서울
- 2009 유랑하다, Boda Gallery Contemporary, 서울
- 주요 단체전
- 2013 기억과 기억하기,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서울
한시 방향의 저글링 때: 인사미술공간, 서울
- 2012 Reconpace, SK View, 대구
Action, Reaction, 갤러리 kimi 아트, 서울

- Solo Exhibitions
- 2012 The letter of Houin Mai, Art Center Nabi, Seoul
- 2009 Wandering, Gallery Boda Contemporary, Seoul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3 Politics of Memory, Practices of Remembrances, Hanyang University, Seoul
Flow of Contemporary Art in Korea(Feminism), Yunseul Gallery, Gimhae
- 2012 Action, Reaction, Galley Kimi ART, Seoul
Juggles When an Hour’s Directions, Arko Art Center, Seoul
DECONPACE, SK Leaders’ VIEW, Daegu

정기현
대한민국

Jeong, Kiheoun
Korea

조전환
대한민국

Cho, Jeonhwan
Korea



교동로맨스
Gyodong Romance

싱글 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7'
2011

이른 아침 날이 밝기 전 아련하게 들리는 수탉의 울음소리와 함께 나의 일과는 시작 된다. 늦잠을 자야 할 때는 닭의 울음소리가 거추장스럽지만 대체로 전화기의 알람소리보다 아름답고 부담스럽지 않다. 날이 밝으면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작업실에 돌아와 뭔가를 궁리하는 주경야독형 생활을 하고 있다. 언재부턴가 작업실에 각종 농기구와 닭장 만들기를 위한 도구들과 재료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나의 머릿속도 그와 마찬가지로.

My day starts with the rooster's faint crow from afar before dawn, in the small hours. The cry can be bothersome when I wish to sleep in late, but in general, it is more beautiful than the clock alarm, a pleasant disturbance. I tend to go my field in the day, and work in my studio at night. From time unknown various farming equipments, tools and materials for building chicken coops occupy my studio. My head feels the same.

2012 노마드 프로젝트에서
during 2012 Nomadic
Arts Residency Program



‘2012 노마딕 아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몽골에 참여하면서 만든 작품이다. 한옥의 원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만난 초원의 바퀴, 한옥 사개맞춤의 횡압에 대한 저항구조가 흔들리는 대지를 가로질러온 수레기술로부터 시작됨을 추측한다.

I made this piece while I was participating in the 2012 Nomadic Arts Residency Program Mongolia. I surmise that the wheels in the grasslands, and the ‘tenoning a pillar’ technique in traditional Korean houses that structurally resists the lateral pressure, which I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seeking the origin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spring from the wheel and carriage technology that had been transferred from across the shaking lands.

개인전

- 2012 *아트닭장프로젝트*, 경기북일대마을
- 2010 *Beauty Farm*,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 한여름밤의꿈-육상과 영상전*, 금작빌딩 309호, 서울
- 2009 *OASIS-분수리*, 쿤스트독, 서울

주요 단체전

- 2012 *동네미술*, 경기도미술관, 안산
- 물밑대화*, 쿤스트독, 서울
- 그 거리(distance)의 창의적 자세*, 금천예술공장, 서울
- Ultra Nature: Overdose of Green*, 수원시미술전시관

Solo Exhibitions

- 2012 *Project Art henhouse*, a Village located in the Gyeonggi Province
- 2010 *Beauty Farm*, Community Space Litmus, Ansan
- A Midsummer Night's Dream*, Gumja B/D Oksang, Seoul
- 2009 *Oasis*, KunstDoc,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2 *Slow Art*, Ssamzi Gallery, Seoul
- Dialogue under the Water*, KunstDoc, Seoul
- Ultra Nature*, Suwon Art Center, Suwon
- Community Art*, Gyeonggi MoMA, Geyonggi-do
- A Creative Attitude of the Distance*, Geumcheon Artspace, Seoul

한옥 건축

- 2013 경주오씨한옥살림집 설계 및 시공
- 2012 양양 한옥펜션 리모델링 외
- 2011 상주 화서면 한옥살림집 설계 및 시공 외
- 2009 경주 남산 한옥설계 및 시공
- 2007 경주호텔 '라궁' 기획, 한옥공사 시공

전시 및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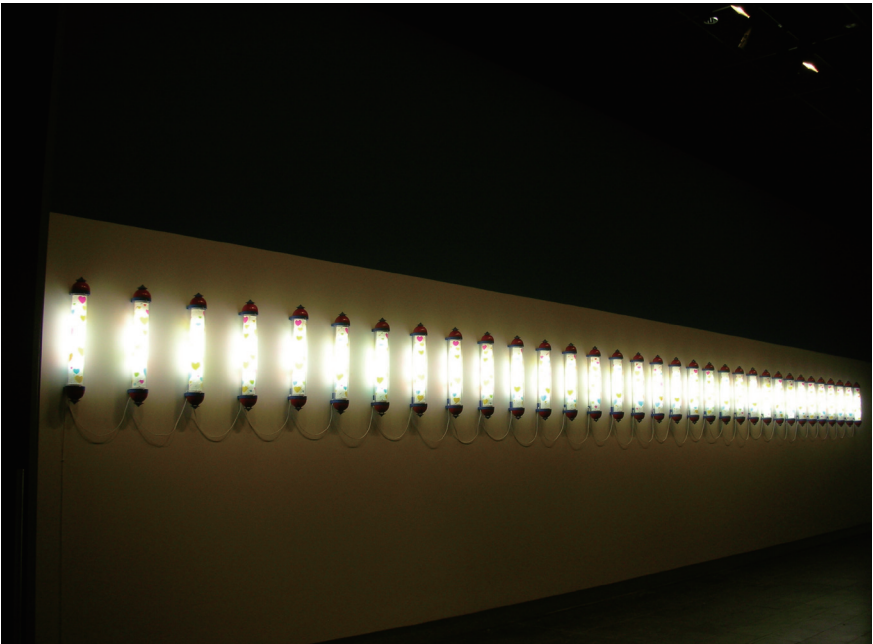
- 2013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팬스* 출연, 안은미무용단
- 2012 *생각여행-길 떠난 예술가 이야기*, 경기도 미술관
- 한국-몽골 *Nomadic arts residency program* 참여

정동구 / 최두수
대한민국

Jung, Dongkoo/Choi, Dusu
Korea



정동구
Jung, Dongkoo
-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
Hoarders
싱글 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35'
2011



최두수
Choi, Dusu
- 유혹적인 바람
An Enchanting Breeze
혼합재료
가변크기
mixed media
variable
2004

green & brown pictures

예술의 창작과정과 작가들의 일상, 열정, 영감과 구현과정 등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여 디지털 시대 예술의 소통의 관계를 기록하며 작가와 작품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관한 영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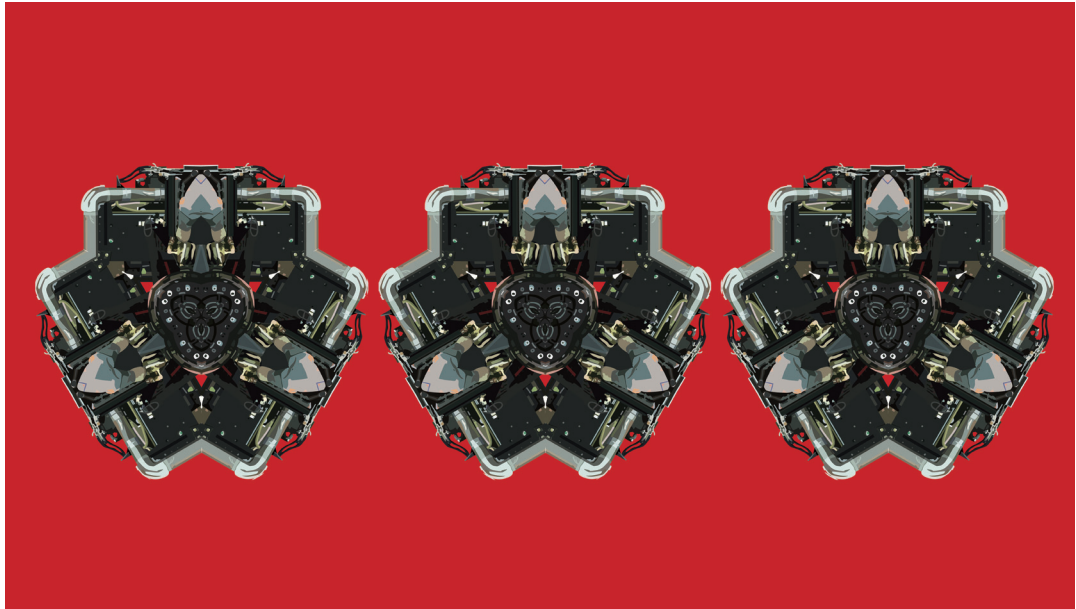
Our aim is to produce a documentary on the creative process of art, the daily lives of artists, their passions and the way they realize their inspirations; record the relation of artistic communication in the age of digitalization, and form a cinematic interrelation regarding the artist, artwork and the environment.

- 정동구
전시 및 스크리닝
2012 다큐멘터리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 (HD, 34'43"),
인디다큐페스티발,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
서울 환경영화제
2011 *우리가 되는 방법* (HD, 원채널 비디오),
스페이스 풀, 이태원

- Jung, Dongkoo
Selected Exhibitions & Screening
2012 Documentary *Hoarders* (HD,34'43"),
Seoul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 Video Festival,
13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Green Film Festival in Seoul
2011 *How to Become Us* (HD, Single Channel Video),
Art Space "gguull", Seoul

- 최두수
개인전
2010 *아무도 없는 땅*, 인사미술공간, 서울
2006 *유혹적인 바람*, 갤러리 현대 윈도우, 서울
2005 *산 자르기*, 갤러리 쌤지, 서울
2004 *짧고 달콤한 마법 같은 시간을 위한 사인*,
The Economist, 런던
2002 *크고 밝은 노란 태양 아래*, 쌤지스페이스, 서울

- Choi, Dusu
Solo Exhibitions
2010 *No Man's Land*, Insa Art Space, Seoul
2006 *An Enchanting Breeze*,
Gallery Hyundae Window, Seoul
2005 *Cut off the Mountain*, Gallery Ssmzie, Seoul
2004 *A Sign for Short, Sweet and Magical Times*,
The Economist, London
2002 *Under the Big, Bright, Yellow Sun*,
Ssamzie Space, Seoul



Factory Flower (Unit) 006

싱글 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2013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소외 된 우리(노동자)의 모습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현대인의 건조한 삶과 더불어 일상에서 우리가 의식하는 ‘美’라는 실존하지 않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두 작가의 협업을 통해 패턴으로 구성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의미 있고 색다르게 바라보고자 한다.

We try to talk about the concept of “beauty” as we recognize it in our dry, daily lives as contemporary subjects (laborers) who mechanically repeat days of alienation, a concept that in fact does not exist. Our intention is to provide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life by collaboratively constructing patterns that depict such tendencies.

- 김홍수

주요 단체전

2012 인터로컬2012 *과잉과 잉여*,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대전

Burning Animation, *멈추면 죽는다*, 온라인 상영(www.mod.or.kr)

다중적현상, 군산창작문화공간 여인숙, 군산

아시아프 문화역에 내린 젊음, 문화역 서울284, 서울

- Kim, Hongsu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Inter-Local 2012, *the excessive-& surplus*,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Burning Animation, *Move or Die*, Online Screening(www.mod.or.kr)

Multiple Phenomenon, Art & Culture Space in Gunsan Yeoinsug, Gunsan, Korea

Asian Students and Young Artists Art Festival, Youth at the Culture Station,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 원동민

개인전

2012 공평아트센터 기획초대전, *꽃*, 공평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Asia Contemporary Art Show*, Grand Hyatt Hotel, HongKong 외 다수
- Won, Dongmin

Solo Exhibitions

2012 *Flower*, Gongpyeong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Asia Contemporary Art Show*, Grand Hyatt Hotel, HongKong and other cites

프로젝트 그룹전

2013 *보편적일상*,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Project Exhibitions

2013 *Universal day-to-day*~ Project Group M.S (Hong-su Kim / WONDONGMIN), Suwon Art Center, Suwon, Korea

기획레지던시

58 59

ETC

이샘 / 전보경 / 진나래
대한민국

ETC

Lee, Saem/Jun, Bokyung/Jin, Narae
Korea



이프 유 드림 잇:ㅇㅁ★△×
If You Dream It:ㅇㅁ★△×

영상설치
video installation
2012

ETC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가의 시각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다른 시점을 ‘예술서비스’로 제공하는 가상의 일시적 합의 기업이다.

전보경 진나래 이샘 세 작가는 도시의 현상에 관심을 갖고 일시적으로 한 곳에 머무르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전지구적/지역적 사회, 정치,경제, 문화적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ETC는 제 3의 입장에서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일상의 공간에 예술적 상상의 충위를 입혀 그 사회적 구조망에 새로운 한 점을 더하고자 한다. ETC는 도시-장소/사람/관계/역사/서사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경험의 창조, 영상, 전시, 출판 등의 방법으로 작업한다.

ETC is an arts collective (Bokyng Jun, Narae Jin, Saem Lee) established since July 2012 that aims to research happenings at various places by exploring cities freely. ETC gets the inspiration from walking, coincidence meetings, stories from local people, and historical research on sites. ETC listens to the cities so that ETC can do visible/invisible, direct/indirect communication as well as make relationships with the cities and regions.

ETC performs several city tour projects that show various ways to understand regions by connecting with issues of universal/local society,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 이샘
개인전 및 주요 단체전
2013 MAP, 문래 아트 스페이스
2012 Back to the Future,
2012 Nigith Walkers in Incheon Spacebeam
그 거리의 창의적 자세, 금천예술공장
If You Dream It, 서울
오프 앤 프리 국제영화예술제, 아르코
2009 ASYAAF,
Asian Students and Young Artists Art Festival

- Lee, Saem
Solo Exhibitions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3 MAP, Mullae Art Space
The 4th Off&Free International Film & Art Festival
2012 If You Dream It, Seoul Station
The Creative Attitude of That ‘Distance’,
Seoul Art Space, Geumcheon
Back to the Future, Space Beam; Nightwalkers in
Incheon International Residency with Expodium
2009 Asian Young Artists Art Festival, Seoul, Korea

- 전보경
개인전
2012 이웃의 미학 이태원, 테이크 아웃 드로잉, 서울
2011 이웃의 미학 한남동, 테이크 아웃 드로잉,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NIGHT WALKERS in INCHEON, 스페이스빔, 인천
2011 GoodMoney, 상상마당, 서울
Artonbrighton, Brighton beach,
Brooklyn, NY
Pratt Harlem Project, FDB Pop - Up Gallery,
New York, NY

- Jun, Bokyung
Solo Exhibitions
2012 The Poetics of Neighborhood,
Takeoutdrainwg: Iteawon, Seoul
2011 The Poetics of Neighborhood,
Takeoutdrawing: Hanman,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NIGHT WALKERS in INCHEON, Spacebeam, Incheon
2011 GoodMoney, Sangsangmadang, Seoul
Artonbrighton, Brighton beach, Brooklyn, NY
Pratt Harlem Project, FDB Pop - Up Gallery,
New York, NY

- 진나래
개인전 및 주요 단체전
2012 초원장, 스페이스 빔(인천문화재단 지원 개인전)
스페이스빔 국제레지던시 ‘Nightwalkers in Incheon’
2012 Blackout, 관악산 야외 폐수영장
2011 vo/d, Gallery Boda Contemporary
우석홀에서 만나요, 서울대학교 우석홀

- Jin, Nara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Chowonjang, Space Beam,
Incheon (Supported by Incheon Fine Arts Council)
Space Beam International Summer Residency
‘Nightwalkers in Incheon’, Incheon, S.Korea
Blackout, abandoned swimming pool and its annex
in Mt. Gwanak, Seoul
2011 vo/d, Gallery Boda Contemporary, Seoul
See You at Wooseokhall, Wooseokhall, Seoul

홍남기
대한민국

Hong, Namkee
Korea

NOT DEAD

드로잉 애니메이션, 사운드
drawing animation, sound
2' 45"
2012



내가 만든 좀비 그 속에서 우리의 불안이 그려낸 하나의 단상이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좀비들은 또 다른 욕망의 실체이다.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낯선 사운드와 함께 어우러진 인물들은 어떤 도구도 없이 서로 위협하거나 모호한 행동들을 하며 불안하게 유영한다. 인물의 자세와 형태에 따라 내가 가해자일수도 피해자일수도, 혹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모호하고 부조리한 상황에 놓인 인물에 대한 고찰은 더 극적인 상황들이 제시되며, 인간 심리 저변의 어두운 면을 포착하여 암울하고 자극적이며, 기괴하게 만들어 오늘날의 왜곡된 휴머니즘을 말한다.

The zombie I made, it is a snippet of our anxiety, and the other zombies in the pieces embody different desires. The characters, mixed in with unfamiliar sounds and created through drawing animation, float around in a purgatory of angst, threatening one another or conducting ambiguous actions. One can be the perpetrator, victim, or even both depending on the position and form. Observations of characters in uncertain and absurd situations present even more dramatic situations, capturing the darkness that lurks beneath the depth of human psyche as a way of discussing the distorted humanism of our time through its dark, shocking and grotesque forms.

개인전

- 2011 *John & Balboa*, 스페이스15번지, 서울
- 2010 *Kooowang!*,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 2009 *Romantic memory*, 금호미술관, 서울

주요 그룹전

- 2012 *EXTERIOR*, 아트라운지 디방, 서울
- 바초혁명전*,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 NO.45 Kumho Young Artist*, 금호미술관, 서울

Solo Exhibitions

- 2011 *John & Balboa*, Space 15th, Seoul
- 2010 *Kooowang!*,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do
- 2009 *Romantic memory*, Kumho Museum,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2 *EXTERIOR*, ART+LOUNGE DIBANG, Seoul
- Art X Game - Bartz Revolutionary Wa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do
- NO.45 Kumho Young Artist*, Kumho Museum, Seoul

김미란
대한민국

Kim, Miran
Korea

외면화된 기억3 Externalized Memory3

한지에 펜 드로잉
pen drawing on the hanji
(Korean paper)
95×73 cm
2013



근래의 드로잉들은 삶 전반에 걸쳐 세월의 층위를 축적하며 꿈으로 등장하는 유년 시절의 오래된 기억들을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이며, 꿈과 기억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드로잉으로 구체화하고 그것을 다시 삶 속에 끌어들이는 작업이다. ‘경기창작센터’에 오가며 안산 공단 끝 해안도로에서 보어지는 노출된 공장 풍경들은 내가 그 동안 드로잉 해왔던 뇌 속의 뉴런과 시냅스에서의 화학반응들이 외면화되어 있는 꿈이다. 현미경으로 바라본 뉴런만큼이나 생소하여 보다 비현실적이며 몽환적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을 꿈과 환영의 이미지와 결합해본다.

Recent drawings are works that draw out old childhood memories that appear in my dreams, accumulating layers of years throughout life; the process involves images created at the boundaries of dreams and memories into the form of drawings, and then pulling them into my life again. The factories I see on the coastal roads at the end of Ansan Industrial Complex, going into and out from Gyeonggi Creation Center, are dreams in which the chemical reactions of my neurons and synapses are externalized. They are as unfamiliar as neurons we see in microscopes - I combine these unreal, dreamy sceneries with the images of dreams and illusions.

주요 개인전

- 2013 *외면화된 기억-공간 드로잉 워크숍*/open studio, 경기창작센터
- 2010 *경계*, 단원전시관
- 2007 *색에 빠진 여자*, 갤러리 각
- 2006 *인천여성프리비엔날레 부스 개인전*

그룹전 및 기타 기획 초대전 80여회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3 *Externalized Memory-Space Drawing*
- 2010 *Boundary*, Danwon Gallery, Ansan, Korea
- 2007 *Fall in Color*, Gallery Gac/ Seoul, Korea
- 2006 *Inchon International Woman's Pre Biennale Personal Fair*, Incheon, Korea

유우연
대한민국

Yoo, Wooyoun
Korea



365일 - 시선
365 Days - Gaze

혼합매체
mixed media
52.8×72.5cm
2013

1호 캔버스는 1년 365일중 하루를 나타낸다. 인간은 자유와 질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지만 결코 자유롭게 못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질 좋은 삶을 위해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기지만 목표를 향해가기까지의 과정에서부터 자유를 상실 하게 된다. 이러한 답답하고 자유롭게 못한 아이러니한 세상을 손바닥 만 한 크기의 화면으로 비유한다. 1호 캔버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수많은 날 중에 하루를 표현한다. 1년 365일 동안 가지각색의 인간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행위를 다양하게 그려내고자 한다. 캔버스 안에 작은 사람의 형태를 툭툭 던져 놓은 듯한 모습은 답답한 이세상속을 억지를 부리며 꺼 맞춰 살아가는 듯하지만 여가와 행복을 추구하려는 현대인들의 침묵 속 고독을 나타낸다.

Canvas of size 1 means a day out of the 356 days of a year. Human beings strive for freedom and lives of a higher quality, but end up living discontent, fettered. People work and enjoy leisure time to improve their life quality, but they lose their freedom in the course of marching on towards their goals. I allude to this irony of bondage as a human condition through a palm-sized canvas. Canvas of size 1 indicates one day out of the countless days we live in our lives. I intend to depict activities of life in various forms, from birth to death, throughout the year. The small humanoid characters scattered on the canvas point to the silent solitude of contemporary mankind, trying to pursue happiness and leisure despite the limitations they experience in this restricted world.

국내최초 인물시사주간지-주간인물
〈예술인의길-유우연작가 인터뷰〉
청소년 수련원 출강
경기창작센터 2012 기관협력 스튜디오 레지던시
그린시티 프로젝트- 환경과 미술이 연관된 표현기법 강의 (한양대학교)

Domestic first weekly magazine - current events of prominent person this week <A way of artist woo youn yoo interciue>
lecturing activities at teenager training center
Gyeonggi Creation Center 2012 institution studio residency
Green city project - Lecture for expressive teching related environment and arts(Hanyang university)

노명우
대한민국

Nho, Myungwoo
Korea



경기창작센터 스튜디오
GCC studio

노명우는 현재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신음악의 혁명을 이끌었던 쇤베르크에 대한 아도르노의 해석을 사회학 이론으로 번역 시도했던 박사학위 논문 이후로, 줄곧 예술과 사회학을 접목하는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예술 작품 속에서 사회를 읽을 수 있다는 아도르노의 모나돌로지 방법론을 수용하여 예술 속에서 사회를 읽고 또한 사회 속에 예술이 처한 맥락을 읽는 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술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관심 있기에, 미디어화된 사회성(sociality)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는 당연히 미디어화된 예술에 흥미를 느낀다. 사회학 분야에서 미디어 연구, 문화연구, 비판이론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궁극적 관심사는 사회학 이론 자체의 미학화 가능성이다.

아도르노의 아놀드 쇤베르크 신음악 이론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논문으로 베를린자유대학 사회학 박사(summa cum laude)
출판: 〈계몽의 변증법을 넘어서〉, 〈야만으로 후퇴하는 현대〉
〈아방가르드〉,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 〈노동의 의미를 묻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불확실한 세상〉, 〈발터 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 〈문화사회학〉 〈미래교육의 열쇠, 창의적 문화교육〉

Myung Woo Nho is a professor in sociology at Ajou University. Since the publication of his doctoral dissertation, in which he attempted to translate Adorno's understanding of Schönberg, a revolutionary figure in the field of new music, his research has focused on grafting art onto sociology. By resorting to Adorno's monadology method, in which Adorno asserts that one can read the given society through art works, he tries to read the society through art, as well as the context in which art is located in the society. Naturally, as a sociologist who studies the media-related aspect of sociality, he is interested in media and art. He looks at media, culture and critical theory within the discipline of sociology, but his ultimate interest lies in establishing the aesthetics of sociological theory itself.

Sociologist, Ph. D. thesis on Theodor W. Adorno's Interpretation of Arnold Schönberg's Theory of Neue Musik(summa cum laude)
Professor at Ajou University in Department of Sociology Publications <Beyond the Dialectic of Enlightenment>, <The Regression of Modernity and its Barbarei> <Avantgarde>, <Television, Reflecons of a Television Kid>, <Asking the Meaning of the Labour>, <Homo ludens, Dreaming of the Playing Man>, <Uncertain World>, <Walter Benjamin, Modernity and the Metropolis>, <Sociology of Culture>

이응배
대한민국

Lee, Ungbai
Korea



공동체
Community

철
iron
28×27×30 cm
2012

이것은 공공미술을 위한 마케트로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예상하며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러한 마케트는 작품이 화이트 큐브에 있을 때와 다르게 시각적인 감상 이외의 요소를 감상자에게 줄 것을 예상하며 제작되어진다. 특히 촉각적인 것이 그것인데 촉각을 통한 감상은 좀 더 개인적이며 다각적인 생각을 감상자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촉각은 숨겨 놓은 것을 찾는 행위이다. 피아노의 건반에 손동작이 더해질 때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촉각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마케트 작업을 하면서 촉각은 가장 개인적인 체험 방식이기 때문에 관객이 이로 인해 개인적이며 사사로운 감상을 만들어내기를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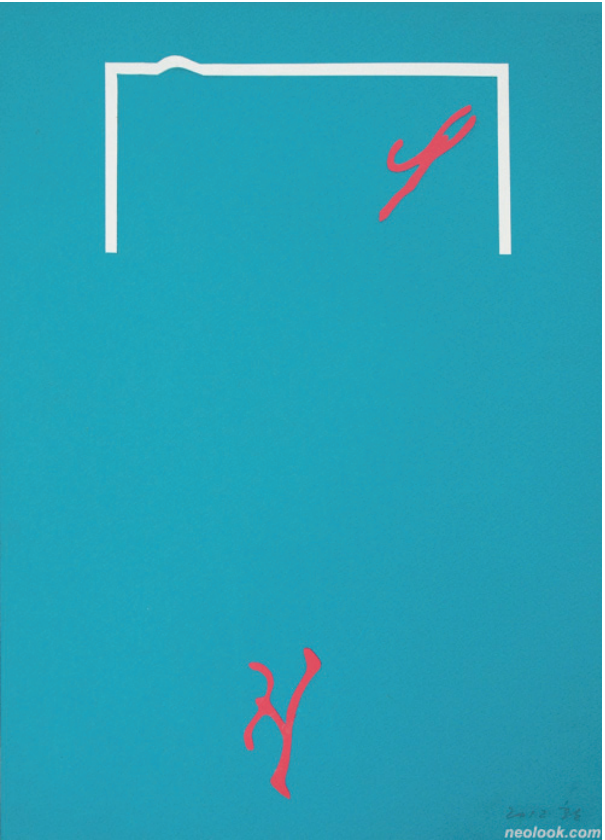
This piece as been created in expectance of the audience's active response, as a kind of a maquette for public art. This kind of maquette is, in its production stage, made in anticipation of providing factors other than visual appreciation, unlike the case in which art works are limited to the white cube. The haptic aspect, especially - haptic experience generates a more personal and multi-layered level of thinking in the audience. Haptic sensory input is an act of seeking the hidden. Like the addition of hand movements to a piano creating music, haptic input can be seen as an understanding of a world that remains invisible. Therefore, working on the maquette, I wish the audience would come up with personal and private appreciations, as tactile input is a most personal experience.

- 개인전
- 2012 제 13회 개인전, 경기창작센터
- 2011 제 12회 개인전, 갤러리 담
- 2010 제 11회 개인전, 몽골국립미술대학, 울란바토르, 몽골
- 주요 단체전
- 2012 The Cross, FNart Space
Audio Craft, 갤러리 가이아
포항스틸아트 페스티벌, 포항시립미술관

- Solo Exhibitions
- 2012 13th Solo Exhibition,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1 12th Solo Exhibition, Gallery DAM, Seoul, Korea
- 2010 11th Solo Exhibition, Mongolia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 Ulaanbaatar, Mongolia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2 The Cross, Fnart Space, Seoul, Korea
Audio Craft, Gallery Gaia, Seoul, Korea
Pohang Steel Art Festival, Pohang Museum, Pohang

주재환
대한민국

Joo, Jaehwan
Korea



패널티킥
Penalty Kick

색종이
color paper
54×39 cm
2012

잠시 후면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초긴장 상태. 심판의 호각 소리와 함께 킥하는 공을 찼고 골키퍼는 몸을 날렸다. 근데, 아뿔싸. 잘못 날리고 말았다. 공은 이미 골 문 왼쪽 위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 고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익숙한 기업들은 그것들이 공격을 해오던 방식에 맞춰 습관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몸을 날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은 사실 반대쪽으로 오고 있는데 말이다. 이론적으로 공이 골문에 다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0.4초. 반면 골키퍼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0.6초. 가망이 없다. 하지만 막아야 한다. 막아야만 한다. 긴장한 킥커가 골대 밖으로 차버릴 지도 모를 일이다.

동아 비즈니스 리뷰 기자 김선우
동아 비즈니스 리뷰

Seconds before the critical moment. The kicker kicks the ball as the referee blows his whistle, and the goal-keeper flies up to stop him. Oh no, but the move takes a wrong turn. The ball has already entered the goal post. Can we not say, that our companies already used to high-growth and inflation-are habitually throwing and deflation-are flying in from the goal is 0.4 seconds. No chance. But one must stop it. A real kicker may kick it out of the way.

Kim Sun-woo, Reporter
Dong-a Business Review

- 196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수학
- 1980 – 현재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미술계에 입문하여 현재까지 각종 주요 단체전 수십 회와 6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 1960 Hongik University School of Art, Western Painting
- 1980 – Present Entered the art world as a member of "Reality and Utterance." Held various group exhibitions and six solo exhibitions.

2013 입주작가 쇼케이스 왓츠온	2013 Resident Artists' Showcase, What's on
2013. 5. 10 – 11. 3	2013. 5. 10 – 11. 3
경기창작센터 상설전시장 프리박스	Gyeonggi Creation Center, Free Box, the Permanent Exhibition Space

기획 경기창작센터	Organized by Gyeonggi Creation Center		
총괄진행 최춘일(경기창작센터장)	Chief Director Choi Chunil(Director of Gyeonggi Creation Center)		
학예지원 김진희(학예팀장) 김현정 윤가혜 최정수 서정민 성승혜 이철재 이현인 조혜정	Curatorial Support Kim Jinhee(Chief Curator) Kim Hyunjeung Yoon Kaye Choi Jeongsoo Seo Jeongmin Sung Seunghye Lee Chiljae Lee Hyunin Cho Hyejung Educatory Support Kim Jinhee Choi Jeongsoo Sung Seunghye Lee Chiljae Cho Hyejung	편집인 경기창작센터장 최춘일	Editor Choi Chunil, Director of Gyeonggi Creation Center
교육지원 김진희 최정수 성승혜 이철재 조혜정	Administrative Support Chae Cheeyong(Chief Administrator) Kim Misun Cha Youngkun Lee Moonhee Lee Joohyeon Jeong Hyunjoo Cho Keunha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엄기영	Publisher Um Kiyoung, Presiden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행정지원 채치용(기획사업팀장) 김미선 이문희 차영근 이주현 정현주 조근하	Maintenance Support Park Moonchul Park Junhyung Oh Minseong Cho Kwanhui Park Jongwon Kang Jaeul Kim Byungwan Kim Ilyong Kim Okyub Yu Ilsoon Lee Jeongsook	발행일 2013. 6	Date of Publishing June, 2013 Sponsor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do Managed by Gyeonggi Creation Center
시설지원 박문철 박준형 오민성 조관휘 박종원 강제을 김병완 김일용 김옥엽 유일순 이정숙	Media Installation Miji Art Space Construction Gyeonggi Interior Corporation	주관 경기창작센터	
영상기자재 미지아트		주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공간조성 경기종합공사			편집 진행 서정민 번역 신혜린 서정민 감수 김현정 디자인 워크룸 인쇄 인타임
			Executive editor Seo Jeongmin Translation Shin Haerin Seo Jeongmin Supervision Kim Hyunjeung Design workroom Printing Intime

